

온라인 빅데이터로 본 10대 청소년 미의식 분포 및 현상

The Beauty of Being Yourself



KAIST

AMOREPACIFIC

 다음세대재단

책임연구원	이원재(KAIST Social Computing Lab)
연구원	류다현, 최희윤, Luisa do Amaral(KAIST Social Computing Lab)
주관	아모레퍼시픽, 다음세대재단
연구	KAIST Social Computing Lab
후원	아모레퍼시픽

이 보고서는 상업적 사용이 불가하며, 출처를 밝히지 않은 무단 전재 또는 복제를 금합니다.

목차



선행연구 분석	2
데이터 및 방법론	14
분석 결과	20
논의.....	57
부록.....	62
참고문헌	66



선행연구 분석

1. 한국 청소년과 청년들의 특성

청소년들은 불안정한 사회에서 성적-학업 경쟁에 노출되어있으며 지표를 통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환경의 감정이 내면화되어 있다(김연숙, 2017). 한국의 교육 문화는 청소년들의 다름과 차이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고 단일한 성적 기준을 중심으로 한 경쟁과 성공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이기범, 2009).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레스의 극한 수준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학교 폭력과 함께 자살 생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Park, Chung, 2014).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가족, 학교의 사회자본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또래 관계가 좋은 것, 가족들과 학업 스트레스를 나누는 것은 오히려 학업 스트레스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Jarvis et al., 2020).

한국 청소년들의 비교의 감정과 수행은 계급화된 상태로 구별지어져 발생한다(김수정, 차영화, 최섯별, 2020). 청소년의 꿈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지위 표식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은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류 계급 내의 타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꿈을 설정하고, 특정 대상들을 선망하거나 거리를 둔다. 상층 계급은 전문직, 고학력 직업을 희망하고 꿈을 상향 조정하는 반면, 중층 계급은 적극적으로 전문직, 고학력 직업을 희망하기보다는 상층 계급을 선망하고 모범으로 삼는다. 하층 계급은 중층, 상층과는 다른 꿈을 꾸다. 그들은 비전통적 직업을 갖고 하위 직업을 희망한다(김수정, 차영화, 최섯별, 2020).

청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계급화된 불평등의 인식은 경험적 데이터와는 간극을 보인다. 2010년대 중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등장한 ‘헬조선’은 기존의 권력 구조와 사회적 규범을 비판하면서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의, 정치적 부패, 사회 지위 상승 기회 부족에 대한 절망감을 드러내는 용어로 사용됐다(이우창, 2016). 유사한 맥락에서 등장한 ‘수저론’은 한국 청년들이 ‘금수저’와 ‘흙수저’ 부모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성취가 결정된다는 비관적 좌절감을 드러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한준, 2016). 하지만 실제 2000년대 이후 세대 간 사회 이동과 교육 불평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세대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의 이동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근거는 부족했다(정인관, 최성수, 황선재, 최윤, 2020). 이병훈(2017)의 연구에서는 객관적 소득불평등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이동성이나 기회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관적 계층의 지위가 낮을수록, 차별을 경험했을수록 사람들은 기회 불평등을 더 심하게 인식한다. 상식적인 기대와는 달리 가구 소득 위치가 높을수록, 특히 고학력 중산층

이 기회 불평등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데(이병훈, 2017), 이를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불평등과 주관적 평가 사이의 간극을 파악할 수 있다.

왜 객관적 불평등과 다르게 주관적 불평등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을까? 이희정(2018)에 따르면 한국의 젊은 세대는 자신을 낮은 계층에 속한다고 인식하거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자부심이 감소하고 있다. Kasser & Ryan(1993)은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물질적 성공으로 평가받으려는 경향에 대해 언급한다. 세계가치조사(WVS) 1982-2005년 분석 결과, 한국의 탈물질주의 가치는 서구 사회와 비교했을 때 아직 사회적으로 퍼지지 않은 상태이다(박재홍, 강수택, 2012). Pew Research Center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것으로 물질적 풍요를 응답한 비중은 19%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물질주의적인 개인들은 덜 물질주의적인 사람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행복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물질주의적 가치가 높은 개인들은 더 높은 수준의 불안, 우울증, 신경증을 겪는다. 또한, 주의력 결핍 장애, 행동 장애,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가치들을 희생하면서 물질적 소유물을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 관계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Burroughs, Rindfleisch, 2002).

물질적 성공과 소유가 행복과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므로, 경쟁과 성취에 대한 강조가 높은 학업 환경 속 청소년들은 이러한 가치를 내면화하여 내적 동기에 비해서 외적 평가를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내적 동기 추구에 비해 물질주의와 같은 외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은 심리적 적응과 학업 성취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김유나, 설경옥, 박선영, 2017). 외적 평가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외모지상주의와 물질주의는 서로 연관성이 높다. 청소년들의 인기 웹툰에서 외모에 따른 사회적 유용성과 차별을 분석한 결과 외모의 우월함은 열등한 외모에 비해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인식되었으며, 특히 사회적 유용성은 연인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외모의 열등함은 우월한 외모에 비해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전주혜, 신명환, 2019).

2. 한국 청소년의 미 의식

미의식,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아름다움의 개념은 계속 유동적으로 변해왔다. 서로 다른 시대에는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경향에 따라 다채로운 미의식이 존재했다. 아름다움을 향한 추구는 자연스럽고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다양한 해석과 표현이 이루어져 왔다. 아름다움에 대한 탐구는 지적 아름다움, 신체적 매력 등 외면과 내면을 넘나드는 다층적인 범주를 통해 정의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Sisti, Aryan, Sadeghi, 2021). 플라톤은 아름다움이 신체적인 개념인 동시에 도덕적인 개념이라고 믿었다. 그는 아름다움, 진리, 선을 세 가지의 중요한 가치로 여겼으며, 선하고 진실한 것은 항상 아름답지만, 보기
에 아름다운 것이 항상 선하거나 진실하지는 않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대칭적인 특징이 아름다움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였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름다움을 균형과 비례감을 갖춘 조화라고 주장하였다. 마콰르트는 수학적 비율인 황금 십각 이론을 통해 얼굴 미학의 대칭을 설명하였다(Adamson, Galli, 2009). 현대 미학의 논의에서는 아름다움이 더 이상 중심 개념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예술 경험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주변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으나(Stolnitz, 1961),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움의 가치를 핵심적으로 고려하고 아름답기를 희망하고 있다.

아름다움은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작동한다. 문화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상호 의존성은 사회적인 아름다움의 규범에 부합하고자 하는 동기, 자아 불일치, 문화적 맥락과 규범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인 상호 의존성이 높은 문화권의 사람들은 해당 문화의 아름다움 이상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자신의 아름다움과 사회적 기준 사이의 불일치감으로 인한 괴리를 더욱 많이 느낀다. 또한, 사회적 상호 의존성에 따라 문화적으로 특정 아름다움 규범에 대한 강도가 엄격하게 시행될 수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집단 중심적이고, 사회적 상호 의존성이 강조되는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배경은 개인의 행동과 선택이 집단이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이는 개인의 외모와 아름다움이 집단 또는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사회적 상호 의존성이 강한 아시아 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외모와 사회적 지위 간의 연관성이 강조되는 문화적 배경이 있다. 외모와 아름다움에 대해 사회적 압력이 높은 환경에서 개인들은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인정받기 위해서 외모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Madan et al., 2018).

특히 동아시아권에서 아름다움은 무엇을 뜻하는가? 사람들은 왜 아름답고자 열망하는가? 김선우와 이우리(2018)는 대한민국, 중국, 일본 문화권에서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이유와,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형태를 탐색하고자 사람들의 미의 가치(Human Beauty Value)를 제시하였다. 이는 1) 우월성(superiority), 2) 자아 발전(self-development), 3) 개성(individuality), 4) 진정성(authenticity) 네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비교, 경쟁, 규범의 작동은 Human Beauty Value를 추구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비교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영향을 받도록 한다. 사회적 경쟁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외모를 갖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을 촉진한다. 사회적 규범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아름다움의 기준과 규범이 개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도록 한다. 중국의 여성들은 다른 문화의 여성들에 비해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덜 경쟁적으로 추구하였고, 다양한 아름다움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개성과 진정성이 중요한 HBV 차원으로 부각되었다. 일본의 참가자들은 사회적 비교와 사회적 경쟁이 낮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사회적 규범이 강조되었으며 개성과 진정성이 HBV의 중요한 측면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중국과 일본에 비해 협소한 기준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였고, 이는 사회적 비교와 사회적 경쟁을 강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 내면화를 촉진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우월성과 자아발전이 중요한 HBV의 차원으로 나타났다(Kim, Lee, 2018).

외모는 개인 간 우열이나 사회생활의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여겨진다. 이는 외모에 가치의 중심을 두는 사고방식인 외모지상주의(Lookism)로 표현될 수 있다. 외모지상주의는 <뉴욕타임즈>에서 “외모지상주의(Lookism): 세상의 못생긴 사람들이여, 연대하라!”(2000)라는 글을 통해 외모가 새로운 차별적 요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언급한 이후 대중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외모가 가치의 최우선이 되어 다양한 차별을 생산하고(Tietje, Cresap, 2005), 상업자본의 소비와 생산 체제 하에서 물신주의가 반영된 매스미디어를 통해 재생산되고 확장되어 현실과 동떨어진 미의 기준이 개인들의 삶과 사회문화까지 작용하는 것을 뜻한다(Cavico et al., 2012).

청소년기는 발달 과정상 자아 개념이 확립되어 가는 때이다(Erikson, 1959). 이 시기에는 급속한 신체의 성장이 이루어지며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관심을 집중한다. 또한,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 관계에 적극 참여하는 시기이다(민지현, 2008). 청소년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외모컴플렉스와 타인에 의한 외모컴플렉스는 자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이아영, 2007).

소셜미디어와 함께 강화되는 자기최적화, 자기 전시 문화, 셀러브리티화의 경향은 청소년들의 미의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셀러브리티화의 과정은 미디어와 개인의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일반인들이 연예인처럼 주목받는 현상을 뜻한다(Driessens, 2013). 예를 들어, 유튜브 알고리즘은 특정 성별에 따른 콘텐츠를 강조함으로써 자기 최적화의 문화를 촉진시킨다(Bishop, 2018). 이런 알고리즘은 특히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뷰티 블로거들이 만들어내는 성별화된 콘텐츠는 광고주의 요구에 부합하면서 더 많은 노출을 얻게 된다. 이는 청소년들이 외모에 관한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셀러브리티화의 과정은 미디어화, 개인화, 상품화라는 세 가지 주요 동력에 의해 추진된다(Driessens, 2013). 셀러브리티는 업적, 실력 등에 근간을 둔 유명인과 달리 ‘미디어’를 통한 인지도에 핵심적인 영향을 받는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들은 쉽게 셀러브리티화될 수 있으며, 셀러브리티를 통해 특정 가치관과 문화가 대중들에게 전파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최선헌, 2019). 셀러브리티들의 뷰티 콘텐츠를 소비하는 청소년들은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받고 있다. 청소년들은 뷰티 콘텐츠 소비를 통해 자신의 외모와 스타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모에 대한 자아인식을 강화한다. 메이크업 기술과 패션 스타일의 학습과 적용으로 인해 자기만족감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긍정적인 연결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뷰티 콘텐츠 속의 이상적이고 완벽한 이미지는 청소년들에게 자아 비판이나 사회적 비교 유발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고 부정적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작용할 수 있다(서경선, 조고미, 2019). 이상의, 이숙정(2019)의 연구는 소셜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외모에 관한 대화가 청소년들의 신체 불만족이 높아지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였다.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네트워킹을 많이 할수록, 유튜브 뷰티 콘텐츠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외모 대화가 높아졌다. 외모에 대한 부정적 대화 빈도가 높을수록, 마른 몸매의 내면화와 이상적 외모와의 비교 경향이 높아졌고, 외모 상향 비교는 자신의 신체 불만족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였다(이상의, 이숙정, 2019). 최진명, 웅웬티투(2020)의 연구는 여성들의 외모향상 행위가 명품 소비 추구로 이어지며, 상대적 지위 하락에 대한 우려가 명품 소비 추구와 외모 향상 행위를 매개하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외모인식은 다차원적이며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아영(2007)의 연구에서는 인문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들보다, 서울 지역 학생들이 경기도 지역 학생들보다 외모 콤플렉스가 낮음을 보여줬다. 또한, 예상보다 청소년들의 외모 걱정이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03-2008년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4학년 패널: 2004-2008; 8학년 패널: 2003-

2008) 10명 중 1명이 외모 걱정을 경험했다. 청소년 시기 외모 걱정의 변화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되어 중학교 때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에 감소하는 유동적인 경향을 보였다. 두 패널 집단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외모 걱정 비중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 걱정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빨랐다. 조사 결과 한 번 외모 걱정에서 해방된 학생들이 패널 조사 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외모 걱정으로부터 자유워졌다는 응답 결과를 보였다(Yun & Jung, 2018).

아름다움에 대해 청소년/청년들의 대안적인 움직임도 존재한다. 탈코르셋 움직임은 사회적으로 강요된 여성의 몸과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을 거부하고 몸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려는 운동을 뜻한다. 이는 몸매를 교정하는 속옷인 ‘코르셋’을 벗어던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헤어, 화장, 옷, 신발 등을 통해 고통받았던 신체를 해방하고 대안적인 미적 이상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일률적 미적 기준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전복하는 흐름을 갖는다(김남이, 2019). 10-20대 여성들은 자신들의 화장과 꾸밈 노동이 경쟁에서 더 많은 비용을 치르도록 한다고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제도화된 경쟁 상황에서 평등해지는 길이라고 믿었다(김애라, 2019). 탈코르셋에 동참하는 여성들은 올리브영과 같은 드럭스토어 방문을 제한하거나 구매를 거부하고, 소비 패턴을 조정하며, 환경 친화적, 동물 권리 옹호 제품을 소비하는 등의 실천을 보였다(최예령, 배은경, 2022). 이런 움직임은 대안적 아름다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개인적인 몸의 실천을 통해 획일적인 아름다움에 의문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박현아, 이나은, 2023). 하지만 탈코르셋의 움직임은 ‘여성적인 것을 제외한’ 획일적인 여성상(‘디폴트 여성’)을 중심으로 한 피해 서사에 동참하도록 했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였다(박현아, 이나은, 2023).

3. 소셜미디어와 자기전시

자존감은 중요한 인생의 자원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 성장하고 성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는 그들이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했을 경우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본질적인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Schimmel et al., 2001). 개인의 자존감은 사회 비교 과정, 자아와 타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피드백 처리, 자기 성찰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 피드백을 받으면서 형성된다(Krause et al., 2019).

사람들은 다른 사람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만큼, 인상 관리나 자기 표현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반응을 통제하려고 한다(Goffman, 1959). 소셜미디어는 자신의 온라인 이미지를 신중하게 관리하는데 중요한 플랫폼이다(Hollenbaugh, 2021).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4.8시간을 소셜 미디어에서 보낸다(Pew Research Center, 2023). 또 다른 연구에서는 미국 청소년의 40%가 소셜미디어가 자신들의 소비 습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Nanda, 2020).

사회 비교는 소셜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여러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과정 중 하나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 교류보다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 비교 과정이 더욱 두드러진다(Pew Research Center, 2014). SNS에서의 사회 비교에 관한 연구 결과는 일관되게 프로필 탐색이 자존감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성취에 대한 상향 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다(Krause et al., 2019). 따라서, 집중적인 소셜미디어 사용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높은 사회 비교와 질투와 연관되어 있다(Charoensukmongkol, 2018). 미국과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탐색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질을 평가했으며, 다양한 비교 과정이 각자 자존감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비교는 상향 비교든 하향 비교든, 식별에 기초한 것이든 대조에 기초한 것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잘하고 있음을 깨닫거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열등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Kang et al., 2013).

또래 집단 외에도,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와의 비교는 청소년들의 낮은 자존감의 또 다른 큰 원인이다(Weiss, 2017). 소셜미디어 사용이 청소년들의 물질주의를 증가시키는 영향에 대한 증거는 그들이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과 비교하여 물질적인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상향 비교를 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Thoumrungroje, 2018).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의 시대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로서의 경력은 상향 이동성을 보장하는 실현 가능한 경로처럼 보인다.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은 끈기와 열심히 일한 결과로 성공을 거둔 예로서 칭송받고 있으며, “가난에서 부자로”의 서사를 담고 있지만,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통해 성공을 이루려는 다양한 열망을 보여준다(Shahabang et al., 2022). 그러나 이것은 환상일 뿐이며,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수단과 자원은 비용이 많이 들고, 노동 계층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Droz-dit-Busset, 2022).

다양한 연구를 통해 외모 관련 자존감이 사회 비교에 크게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Patrick et

al., 2004),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는 타인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목표를 가진 소셜미디어 활용이 10-14세 소녀들의 외모 자존감 감소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Steinsbekk et al., 2021). 이 관계는 자기 표현 과정에서도 관찰되며, 사진 보정과 자각된 낮은 매력 및 자존감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도 있다(Ozimek et al., 2023). 텍스트 기반 콘텐츠 대신 이미지 기반 콘텐츠로의 전환이 소셜 미디어에서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한 잠재적 불만족의 효과도 더욱 강화된다.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에 대한 상향 비교의 부정적 영향이 페이스북보다 인스타그램에서 훨씬 높았다(Song, 2023). 그러나 Güzel의 연구는 소셜미디어에 전시된 몸의 바람직한 외모가 그 자체로 목적이거나보다는, 미와 체력이 도덕적이고 물질적 성취와 관련된 바람직한 라이프스타일의 패키지를 판매한다는 것을 보여준다(Güzel, 2023). 이러한 ‘라이프스타일 패키지’로서의 미에 대한 유통은 최근의 소셜미디어로 인해 나타난 변화가 아니며, 고대부터 인기 있었던 풍속학과 지주학과 같은 유사과학이 이미 개인의 외모가 내면의 성격의 징표를 나타내는 것으로부터 이어져왔다는 주장이 있다(Kim, 2016).

이러한 연관성의 영향은 특히 여성들에게 민감하게 작용하며 아름다움과 건강(또는 과체중의 낙인)이 상향 이동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학 연구에서 오래된 주제다(Cahnman, 1968; Elder Jr, 1969). 신체가 불평등의 주요한 장소라는 강조는 연구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이라는 세 가지 일반적인 자본 형태와 물리적 외모를 연관시키도록 했다(Kukkonen, 2021). 소셜 미디어 시대에 유명인 지위의 다양화와 민주화는 일반 사람들도 비슷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틈새 유명인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Driessens, 2013). 예를 들어, 기독교 맥락에서 인플루언서 문화는 진정한 종교의 신앙적 가치보다 외부적으로 인상적이고 문화적으로 관련된 특성들인 아름다움, 부, 카리스마에 더 큰 관심을 돌리고,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간접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Gooch, 2024).

사회적 지위의 분배는 인간이 사회 현실을 정리하고 행동 양식과 기준을 설정하여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연성에 대한 통제를 늘리려는 더 큰 과정의 일부이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모습인지 타인들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정의한다(Goode, 1978). 예를 들어 패션 트렌드도 사회 현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넓은 이해 과정의 일부이다. 의사소통을 통해 우리는 사회를 탐색한다. 상호작용을 통해 패턴과 규칙성이 나타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예측 가능하게 한다. 같은 방식으로, 유사성과 차이를 표시하는 표식이 되는 범주, 개념, 레이블은 사회적 질서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질서의 도구

는 사회생활을 단순화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동적인 만큼 구조적 불평등이 생겨나는 근원이기도 하다 (FeldmanHall & Shenhav, 2019).

사회적 통제는 항상 권력과 강제로 규정될 필요는 없다. 우리는 타인의 모든 행동을 통제와 반통제의 시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통제에 대한 반응으로 유발된다. 예를 들어, 미용 산업도 이 메커니즘에 해당될 수 있다. 18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구체제에서 신체제로의 전환 동안 새로운 엘리트가 왕실이 착용한 사치스러운 화장을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의 새로운 기준을 촉진함으로써 구 아리스토크라시와 자신들을 구별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적” 프로젝트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미용 보조제의 생산자와 판매자, 의사들과 같은 여러 대리인이 자신들의 이점을 위해 아름다움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데 관여했다(Martin, 2009). 2023년 말, Dazed의 기자인 Daisy Schofield는 지난 몇 년 동안 패션과 메이크업 트렌드가 비슷한 방향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녀는 “깨끗한 소녀(Clean girl)” 룩과 “노-메이크업 메이크업” 시대가 유전적인 이점을 선호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결국 사람들을 스킨케어와 보톡스, 필러와 같은 화장품, 시술 소비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 새로운 경향의 결과로,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27%가 미용 제품에 지나치게 지출하여 빚에 빠졌다는 보고가 있다(LendingTree, 2023). 이러한 지출 습관을 소셜 미디어에서 비롯된 기준에 맞추려는 욕구와 연결시키는 연구가 많지만, 개인의 직접적인 사회적 환경을 통한 다른 형태의 압력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또래 평가의 영향은 압도적으로 크며 대부분 부정적인데, 이는 지속적인 또래 감시 상황에서 판단과 배제로 이어지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타난다(Kenny et al., 2016). 다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과는 소녀들에게 더욱 두드러진다. Dubois et al.(2001)은 또래 관계, 학교, 가족, 신체 이미지, 스포츠/운동 중 신체 이미지가 청소년의 전반적인 자아 가치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독특한 예측 요인임을 발견했다. 또한 소녀들의 경우 외모 인식이 덜 호의적인 자기 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ibid., p. 36-38). 신체 무게와 신체 형태에 대한 인식과 감정에 자존감이 지나치게 좌우되는 것은 정신 장애 진단 매뉴얼에서 식욕 부진 및 식욕 과다증의 정의 특징으로 설명되고 있다(Barker & Bornstein, 2010).

Martin(2009)은 18세기 노동 계층이 귀족의 행동을 단순히 모방하기 위해 화장품을 사용했다는 모방 이론이 미용 제품이 충족시키는 모든 사회적 기대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논의한다: “한 통의 립스틱은 연

인을 유혹하거나,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들을 흉내 내거나, 동료들과 새로운 구매에 대해 수다를 떨기 위해 살 수 있었다”(ibid, p. 15). 비슷한 방식으로 한 연구는 부모가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거나 높은 집단 내 경쟁이 있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셜 미디어 사용이 높을 때 질투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사회 비교는 주로 경쟁이 치열한 또래 그룹에서만 유의미하게 관찰되었다(Charoensukmongkol, 2018). 이러한 결과는 유명인사와 인플루언서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 청소년들이 그들이 설정한 기준을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느낄 때만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더 명확하게 한다. 개인이 자신의 특성을 인식할 수 있지만, 그들의 강점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직접적인 사회 환경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Charoensukmongkol, 2018). 또래, 성인, 소셜미디어 사이에서 청소년들에게 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불어넣기를 희망한다면 개인 수준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건강한 기준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특성을 집단적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공동체적 지지 체계가 필요하다.



데이터 및 방법론

1. 데이터

주요 분석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10대 게시판에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27일까지 올라온 게시물 1,631,737개를 수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관심사와 동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상호소통하는 가상 공간으로(Preece, 2000), 10대들 사이에서 정서적 공감과 정보 공유, 일상 공유 등의 목적으로 자주 이용된다. 그중에서도 네이트판은 ‘고정닉(로그인한 유저의 닉네임)’ 사용이 불가해 높은 익명성을 띄며 게시물 열람과 작성도 타 커뮤니티에 비해 자유롭다는 특징을 가진다(구자준, 2018). 이는 커뮤니티 자체의 특이성보다 보편적인 10대들의 담론을 분석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잘 부합한다. 또한 10대가 주로 방문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이며 접속량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 중 유일하게 세대 별 게시판이 분화되어 있다는 이점도 있다. 추가로 보조 분석을 위해서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의 네이트판 뷰티톡 게시물 9,054개와 2021년부터 2024년 3월 말까지의 인스티즈 뷰티 게시판 글 192,561개를 수집했다. 네이트판 뷰티톡은 네이트판 10대 이야기 게시물에서 뷰티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글만 추출한 게시판으로, 미용이라는 한정된 주제어 안에서 10대의 미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주 사용층이 10대에서 30대를 아우르는 인스티즈 뷰티 게시판은 여러 세대의 전반적인 미 주제를 파악하고 10대만의 미 의식과 비교대조하기 위해 사용했다. 이러한 보조 분석을 통해 여러 시점(視點)에서 10대의 미 의식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했다.

데이터 수집 이후 게시물의 제목과 본문 텍스트를 전처리했다. 전처리 과정에서 특수문자와 구두점, 불용어(분석에 의미가 없는 단어)를 제거한 다음 텍스트를 토큰화(tokenization)했다. 토큰화는 자연어 처리 분석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데이터의 모든 문서 텍스트(corpus)를 분석 단위인 토큰(token)으로 잘게 나누는 것을 뜻한다. 이후 네이트판 뷰티톡과 인스티즈 뷰티 게시판에서 TF-IDF(단어 빈도-역 문서 빈도,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값이 큰 상위 2000개 토큰을 추출했다. TF-IDF는 문서 내 중요한 단어들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그 중 10대의 맥락을 포용하거나(네이트판 뷰티톡) 뷰티와 관련된(네이트판 뷰티톡, 인스티즈 뷰티 게시판) 토큰을 선정했다. 네이트판 뷰티톡에서 최종 선별한 토큰은 총 357개로 이들은 네이트판 뷰티톡과 네이트판 10대 이야기 두 곳의 STM(Structural Topic Modeling; 구조적 토픽 모델링)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는 네이트판 뷰티톡이 네이트판 10대 이야기 전체보다 미용에 관한 텍스트를 집약적으로 포함해 토큰들이 미 의식과 더 밀접한 연관을 지녔기 때문이다. 인스티즈 뷰티

게시판에서 선정된 150개의 토큰은 해당 게시판의 미 주제 탐색에 활용되었다.

데이터 출처	수집된 데이터 기간	수집한 문서 수	분석에 활용한 토큰 수		분석에 활용된 문서 수	
인스티즈 뷰티 게시판	2021년 ~ 2024년 3월 말	192,561개	150개		131,677개	
네이트판 10대 이야기	2021.01.01~ 2024.02.27	1,631,737개	STM 357개	DATM 모든 토큰	STM 357,123개	DATM 1,631,737개
네이트판 뷰티톡	2023.03.02 ~ 2024.02.23	9,054개	357개		5,710개	

2. 방법론

A. 구조적 토픽 모델링(Structural Topic Modeling, STM)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은 문서 집단에 숨겨진 단어 패턴, 즉 주제를 찾기 위한 통계적 모델이다(Barde, B. V. & Bainwad, A.M., 2018). 대규모 문서 텍스트를 연구자의 통찰력만으로 읽고 분석하는 일엔 한계가 따른다. 토픽 모델링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며 방대한 말뭉치(corpus)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지닌 단어들을 자동으로 그룹화, 잠재된 주제로 추출한다. 연구자가 사전에 주제를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선입견과 보편적 인식에서 벗어나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까지 토픽 모델링은 역사 문헌, 논문, 문학 텍스트의 주제 분석과 사회 과학 분야에서의 담론 및 정책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Boyd-Graber et al., 2017).

주요 토픽 모델 기법으로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잠재 디리클레 할당)와 STM(Structural Topic Modeling, 구조적 토픽 모델링) 등이 있다. LDA는 개별 문서에 여러 주제가 혼합해 있으며 각 주제에는 관련 단어들이 높은 분포로 속해있다고 가정한다(Blei, David M. Blei, 2012). STM은 LDA와 유사한 프레임워크를 공유하지만 LDA와 달리 주제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저자나 발행연도 등 문서의 메타 데이터를 공변량으로 하여 토픽을 추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단어 분포로 주제를 추출하는 LDA의 한계점을

극복한다(Roberts.M.E. et al., 2014).

우리는 STM 기법을 이용해 1) 인스티즈, 2) 네이트판 10대 이야기, 그리고 3) 네이트판 뷰티톡 게시판 각각에 잠재한 미 주제를 탐색했다. 앞서 선정한 토큰 리스트에 있는 토큰들 4개 이상을 포함한 문서를 선별해 분석에 이용했으며 주제 수는 9개로 설정했다. 메타 데이터로 활용한 데이터는 1) 인스티즈의 경우 작성년도, 2) 네이트판 10대 이야기는 작성 날짜와 조회수, 3) 네이트판 뷰티톡은 작성 날짜, 조회수, 게시물 카테고리이다.

데이터 출처	분석 목적	토큰 종류(개수)	문서 수	활용한 메타 데이터
인스티즈 뷰티 게시판	10대 청소년과 20~30대 청년층의 미의식 전반 이해	150개	131,677개	게시글 작성년도
네이트판 10대 이야기	10대 청소년의 미의식 이해 및 10대의 생애주기적-사회적 맥락과의 연결성 파악	357개	357,123개	게시글 작성날짜, 조회수
네이트판 뷰티톡	10대 청소년의 미의식 전반 이해	357개	5,710개	게시글 작성날짜, 조회수, 게시물 카테고리

B. 담화 원자 토픽 모델링(Discourse Atom Topic Modeling, DATM)

STM을 활용해 미 주제를 탐색한 후, 우리는 DATM으로 네이트판 10대 이야기 속 미 관련 담론들의 응집 양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DATM은 네이트판 10대 이야기에서 수집한 모든 문서와 등장한 모든 토큰을 이용해 분석했다. DATM은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을 이용해 대규모 말뭉치(corpus)에서 잠재 토픽을 식별하는 새로운 토픽 모델로 Arseniev-Kohler가 2022년에 제안한 방법이다. 사전 학습 알고리즘인 K-SVD는 말뭉치의 의미 공간을 나타내는 k개의 희소 벡터를 인지하는데 이때 가장 가깝게 있는 상위 25개 단어들이 잠재 토픽으로 해석된다. DATM은 다른 방법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담화 패턴을 밝혀낼 수 있으며 모델의 품질은 일관성(Coherence), 토픽 다양성(Topic Diversity), SSE(Sum of Square of Errors, 제곱 오차합계), RMSE(Root Means Square Error, 평균제곱오차합계), 그리고 R^2 으로 측정한다(Arseniev-Kohler et al., 2022, p.2). 각 문서를 하나의 토픽에만 할당하는 top2vec (Angelov, 2022)이나 BERTopic과 달리 DATM은 LDA(Blei et al., 2003)처럼 모든 문서가 여러 개의 토픽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토픽들은 담화 원자

(discourse atom)들로, 단어의 다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Arora et al., 2018). 예를 들어 단어가 서로 다른 주제에 속하면서 가지는 서로 다른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

우리는 10대의 미의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STM에 더해서 DATM을 활용했다. DATM은 Word2Vec이나 GloVe와 같은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을 사용하는데, 단어 임베딩이란 단어 간 의미 관계를 계산할 수 있도록 단어 의미 정보를 정량적 표현 즉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DATM의 장점 중 하나는 Word2Vec과 사용할 경우 n-그램(n-grams; bigrams(n=2), trigrams(n=3), pentagrams(n=5) 등 n개의 연속하는 단어 시퀀스를 뜻함) 방법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 bigrams(n=2, 2개의 연속하는 단어 시퀀스)를 활용해 “얼굴 평타”를 “얼굴”과 “평타”라는 개별 단어로 분리하는 대신 “얼굴 평타”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담화 및 대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언어(collocation)를 분석에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DATM은 벡터들의 의미 공간을 k개의 희소 벡터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토픽을 배정한다. 이때 각 의미 공간 벡터에서 가장 가까운 상위 25개 단어가 잠재 토픽으로 해석된다. top2vec(Angelov, 2020)같이 Word2Vec 단어 벡터를 활용하는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DATM은 같은 단어가 여러개의 다양한 토픽에 할당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DATM은 한 단어가 서로 다른 주제 안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다의적인 단어의 분석 가능성을 열어준다(Arora et al., 2018).

C. 의미 속성 네트워크(Attributed Semantic Networks)

단어 임베딩의 장점 중 하나는 코퍼스 내의 단어들과 그들의 관계를 정량화할 수 있는 변수로 변환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토픽 모델링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방식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단어 벡터의 상대적 위치를 사용하고 선형 대수학 개념을 적용하여 단어 간 근접성을 추정한다.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여 Word2Vec에 의해 생성된 벡터를 기반으로 코퍼스의 모든 단어들 간 상대적 유사성을 계산할 수 있다. 코사인 유사도는 벡터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며 -1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이를 통해 단어들이 함께 사용되는지 여부와 사용 빈도에 따라 단어들을 연결하는 의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코사인 유사도의 측정은 모델에서 유의미한 임계값을 설정, 단어들 간 충분히 높은 관계가 있어 네트워크에서 링크를

설정할 수 있는지를 추정하는 데 사용된다.

의미 네트워크는 텍스트의 사회-의미적 분포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네트워크는 전체 텍스트 뒤에 있는 행위자들에 의해 부여된 특성과 개념, 범주 및 역할 간의 의미 관계를 보여준다(Karell et al., 2023; Lee & Martin, 2018). 본 연구에서 행위자는 네이트판 10대 이야기에 활발히 게시하는 한국의 청소년들이다. DATM 수행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 내 단어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조사하기 위해 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둘째로, 각 주제의 단어들과 가장 가까운 상위 단어들을 검색하여 각 토큰의 의미 공간을 탐색하고 서로 다른 주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찾는다. 이 네트워크 그래프는 'attributed network'에 해당된다. 이 용어는 Godart & Claes(2017)가 관객이나 미디어로부터 오는 의미를 가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마케팅과 공공 관계를 위해 만들어진 문서들이 포함된 조직에서 나오는 데이터, 즉 '의도된' 네트워크와 대비된다(2017, p. 120).

DATM과 네트워크에 사용된 Word2Vec 임베딩 모델은 20개 단어의 윈도우로 훈련되었다. 이는 각 토큰의 벡터와 관계를 계산할 때 좌우로 10개의 토큰이 고려되어, '맥락'을 고려하는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결의 유의미성 임계값을 설정하기 위해, 우리는 데이터 사전에 있는 모든 토큰(23,527개) 간 코사인 유사도 분포를 다양한 유의성 수준에서 계산했다. 본 연구에서는 95%를 선택했으며, 그 값은 0.47942이다. 이는 모델 내 연결의 95%보다 큰 코사인 유사도를 가진 단어들만 네트워크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Hashemikamangar et al.(2020)이 사용한 과정을 따랐으며, 노드 크기는 Word2Vec 임베딩 모델에서 토큰의 순위에 따라 계산되었다. 토큰의 순위는 빈도에 따라 계산되었다(Rule et al., 2015).

D. 루뱅 커뮤니티 탐지(Louvain Community Detection)

우리는 네트워크 분석에서 커뮤니티 식별을 위해 루뱅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활용했다(Blondel, V. D. et al., 2008). 네트워크 분석에서 커뮤니티를 식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분할 알고리즘(divisive algorithm)으로, 커뮤니티 간의 연결을 끊어 가면서 네트워크를 분할한다. 두 번째 방법은 응집 알고리즘(agglomerative algorithm)으로, 비슷한 노드나 커뮤니티를 점차 합쳐가는 방식이다. 이런 커뮤니티 추출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모듈성(modularity)이다. 모듈성은 커뮤니티 내부에 펼쳐진 링크가 무

작위적 링크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은지 정량화한다. 구체적으로 원래의 네트워크 G 와 각 노드의 링크를 유지한 채로 대상을 랜덤하게 변화시킨 네트워크 G' 를 비교하여 도출된다.

루뱅 알고리즘(Louvain Algorithm)은 네트워크 내에서 커뮤니티를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으로, 두 단계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 노드를 인접한 커뮤니티에 재배치하면서 모듈성의 변화를 측정하고, 이 과정을 거쳐 모듈성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커뮤니티에 노드를 배치한다. 이 과정은 더 이상 모듈성이 증가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형성된 커뮤니티를 각각 하나의 노드처럼 취급하고, 이들 사이의 연결을 새로운 네트워크로 구성한다. 루뱅 알고리즘의 반복적 접근 방식을 통해 네트워크의 계층적 구조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루뱅 알고리즘은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구조를 빠르고 간단하게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복잡하고 큰 네트워크를 다룰 때 루뱅 알고리즘은 빠른 계산 속도를 보인다. 루뱅 알고리즘은 비지도학습을 기반으로 한다. 이 알고리즘은 사전에 정의된 태그나 카테고리 없이 데이터로부터 직접 패턴을 발견하며, 사용자가 미리 커뮤니티 구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비지도학습 방식은 데이터의 본질적인 구조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관계나 그룹을 발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분석 결과

1. 구조적 토픽 모델링(Structural Topic Modeling; STM)

A. 인스티즈 뷰티 게시판

Topic 1 = 미적 기준과 자기표현

Top Words:

Highest Prob: 쌍꺼풀, 분위기, 카메라, 썬크림, 핑크색, 웨이크메이크, 자신감

FREX: 쌍꺼풀, 핑크색, 분위기, 손민수, 카메라, 썬크림, 열등감

Lift: 부러움, 손민수, 열등감, 쌍꺼풀, 썬크림, 카메라, 핑크색

Score: 쌍꺼풀, 분위기, 카메라, 썬크림, 핑크색, 웨이크메이크, 자신감

Topic 2 = 학교, 취향, 개인화

Top Words:

Highest Prob: 좋아하, 인바디, 피어싱, 여름뮤트, 고양이, 강아지, 중학교

FREX: 인바디, 좋아하, 피어싱, 여름뮤트, 강아지, 고양이, 중학교

Lift: 피어싱, 인바디, 좋아하, 강아지, 여름뮤트, 중학교, 고양이

Score: 피어싱, 좋아하, 인바디, 여름뮤트, 강아지, 고양이, 중학교

Topic 3 = 대인관계, 스타일, 스트레스

Top Words:

Highest Prob: 스트레스, 라이트, 스타일, 여쿨라, 레전드, 목소리, 남자애

FREX: 여쿨라, 스타일, 스트레스, 목소리, 라이트, 레전드, 남자애

Lift: 목소리, 여쿨라, 남자애, 스타일, 레전드, 스트레스, 라이트

Score: 스트레스, 라이트, 스타일, 목소리, 여쿨라, 레전드, 남자애

Topic 4 = 다이어트, 피부, 화장

Top Words:

Highest Prob: 다이어트, 어울리, 피부과, 궁금하, 화장품, 다이어터, 쌍꺼풀

FREX: 다이어트, 어울리, 궁금하, 체중계, 짹사랑, 신기하, 피부과

Lift: 짹사랑, 다이어트, 자존심, 아이브, 체중계, 신기하, 어울리

Score: 다이어트, 어울리, 궁금하, 피부과, 화장품, 다이어터, 쌍꺼풀

Topic 5 = 연예인, 다이어트, 화장

Top Words:

Highest Prob: 칼로리, 연예인, 마스크라, 아이라인, 코로나, 클리오, 인스타

FREX: 칼로리, 못생기, 인스타, 마스크라, 코로나, 아이돌, 날씬하

Lift: 뉴진스, 못생기, 아이돌, 칼로리, 데이트, 날씬하, 인스타

Score: 칼로리, 마스크라, 연예인, 아이라인, 인스타, 코로나, 날씬하

Topic 6 = 메이크업과 개인 케어

Top Words:

Highest Prob: 새도우, 도와주, 속눈썹, 팔레트, 립스틱, 유튜버, 눈두덩이

FREX: 속눈썹, 립스틱, 팔레트, 새도우, 도와주, 눈두덩이, 피부색

Lift: 속눈썹, 립스틱, 만족도, 피부색, 하얘지, 팔레트, 데일리

Score: 속눈썹, 새도우, 도와주, 팔레트, 립스틱, 데일리, 유튜버

Topic 7 = 메이크업, 다이어트

Top Words:

Highest Prob: 몸무게, 사이즈, 메이크업, 베스트, 트러블, 인터넷, 스킨케어

FREX: 몸무게, 사이즈, 메이크업, 인터넷, 트러블, 베스트, 한국인

Lift: 사이즈, 몸무게, 인터넷, 한국인, 메이크업, 트러블, 베스트

Score: 사이즈, 몸무게, 메이크업, 베스트, 트러블, 인터넷, 스킨케어

Topic 8 = 일상적 미용 관리, 소셜미디어

Top Words:

Highest Prob: 앞머리, 블러셔, 마스크, 퍼스널, 클렌징, 유튜브, 페리페라

FREX: 앞머리, 클렌징, 고데기, 블러셔, 마스크, 브러쉬, 페리페라

Lift: 고데기, 앞머리, 파우치, 클렌징, 브러쉬, 프라이머, 다크닝

Score: 앞머리, 블러셔, 마스크, 퍼스널, 클렌징, 유튜브, 고데기

Topic 9 = 여드름, 자기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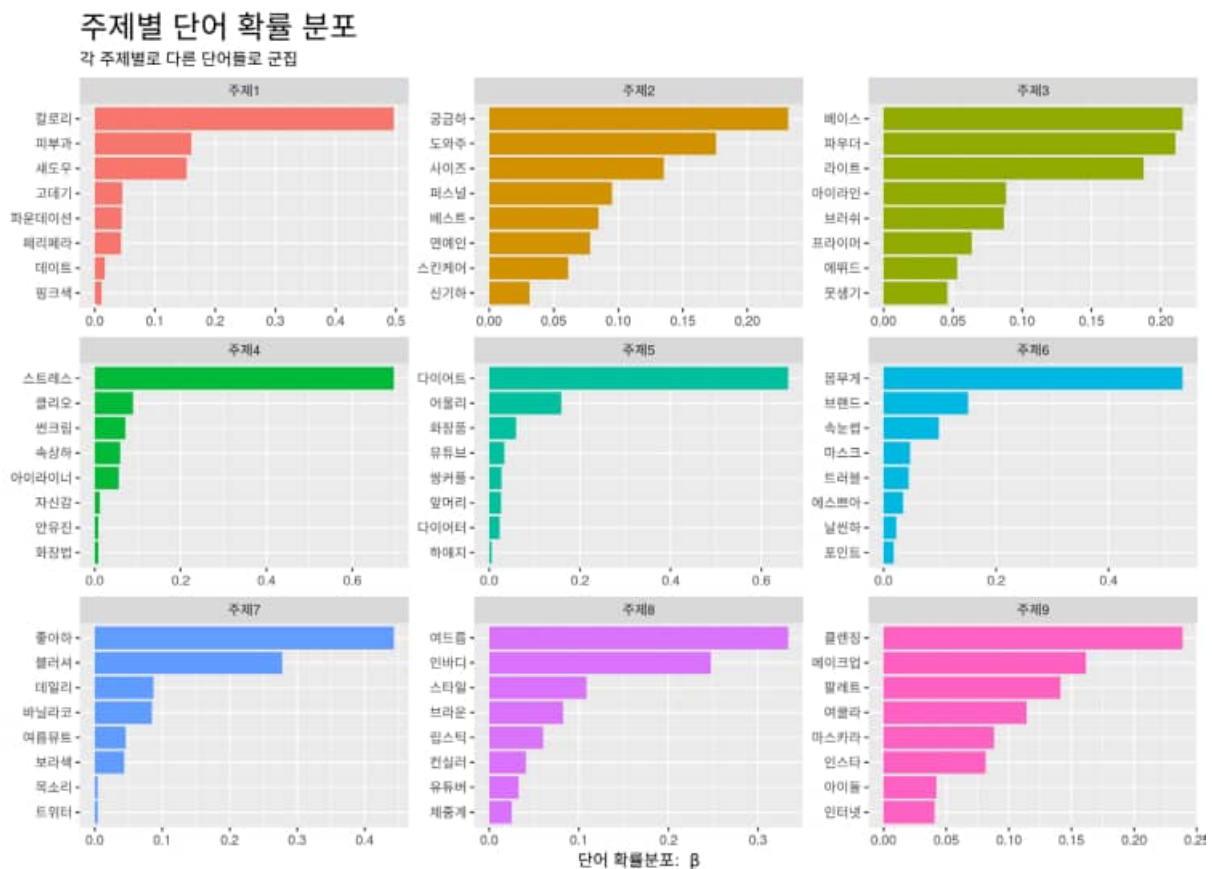
Top Wo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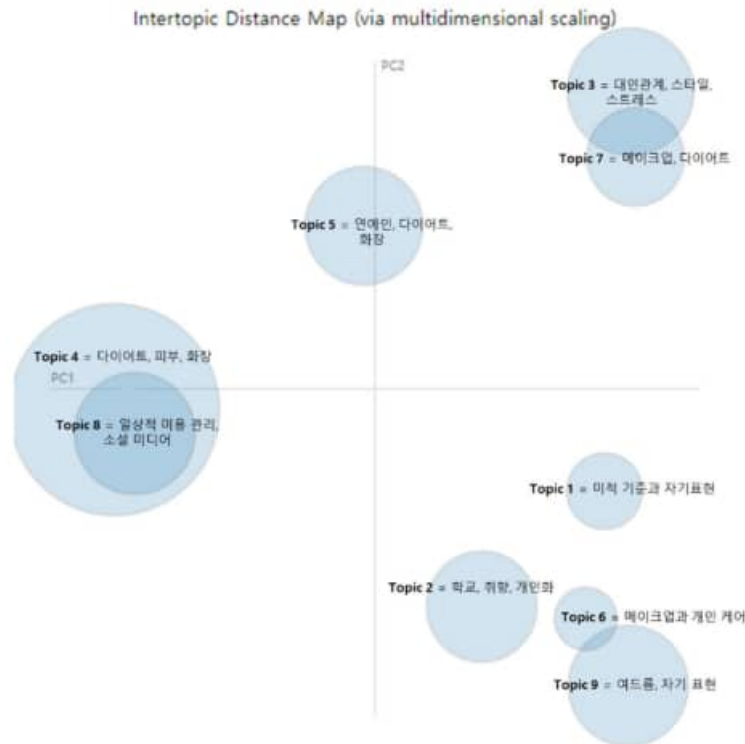
Highest Prob: 여드름, 브랜드, 브라운, 베이스, 파우더, 이미지, 에스쁘아

FREX: 브랜드, 여드름, 파우더, 브라운, 에스쁘아, 컨실러, 베이스

Lift: 브랜드, 여드름, 에스쁘아, 파우더, 컨실러, 장원영, 브라운

Score: 브랜드, 여드름, 브라운, 베이스, 파우더, 이미지, 에스쁘아





인스티즈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10-30대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는 기초 자료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9개의 토픽이 네 개의 군집으로 도출되었다. 토픽 간 거리 지도를 살펴보았을 때 Topic 4과 8, Topic 3와 7, Topic 1, 2, 6, 9, Topic 5가 묶여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Topic 4와 8은 각각 다이어트, 피부, 화장에 관한 논의[Topic 4], 일상적인 미용 관리[Topic 8]을 다루고 있다.

(Topic 4) 뷰잘알 친구들아 톤 궁에 좀 해줘!5 며칠 뒤 검색하려는데 톤을 추측이라도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서!! 립은 헤라 팜파스, 마몽드 애플 바이트가 잘 어울리는 편인 것 같아. 썩한 오렌지는 김치국물 원샷 때린 것 같아. MMLB같이 채도가 낮아지면 안어울려 옷은 1. 채도 높은 옷들 안 어울려 원색 (ex. 빨간색) 이런것들 2. 탁색 돌면 안어울려. 사람이 우중충해 보이더라 3. 흰색 계열 중 크림색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아이보리~베이지 무난하게 어울려! 크림>아이보리>베이지 순으로 어울리는 것 같아 3. 소라색 잘 어울린다고 느끼고, 연핑크는 무난하게 어울려 살구색도 마찬가지로 어울리는 색들이 별로 없어서 옷장 보면 주로 연핑크, 살구색, 아이보리, 크림색, 베이지, 소라색 정도야 검은색 밝은 회색 남색은 강 무난하게 입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입는 색이니깐)

(Topic 8) 가르마때문에 앞머리갈라지는거? 가르마때문에 앞머리가 자꾸 옆으로 갈라져.. 이거는 계속 앞머리 앞으로 내려줘야되는건가?? 갈라지는거 싫어서 그냥 앞머리깎 => 다음날 앞머리 내려고하면 앞머리 갈라짐 이거 무한반복이야 밤에 감으니까 좀 덜한데 핀으로 고정해도 자꾸 갈라지네 후.. 혹시 가르마 안생기게 하는 법 아는 사람.. 고데기 좀만해도 머릿결 안좋아서 푸석푸석해져..ㅠㅠ 다른 방법 없을까

Topic 5는 연예인, 다이어트, 화장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

(Topic 5) 섭취칼로리 계산했는데 800칼로리 나옴 원래 이래? 10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구해서 섭취칼로리 계산했는데 800칼로리 나옴 800칼로리 먹어야 살빠진다는 건데 800칼로리 뭐 진짜 한끼 똑딱아냐? 왜 운동도 하는데 빠지지 않고 슬금슬금 찌나했다..

Topic 7과 3은 각각 다이어트(몸무게, 사이즈), 메이크업(메이크업, 스킨케어, 트러블)[Topic 7], 개인 맞춤으로 최적화된 아름다움의 유형을 제공하는 퍼스널컬러 키워드(라이트, 여쿨라)와 스트레스, 남자애 등 잘 보이고자 하는 대상과 좌절의 감정을 이야기한다[Topic 3].

(Topic 7) 보통에서 몸무게 안빼고 지방만 빼려면 근력뿐이지? 11 몸무게는 보통에서도 밑쪽인데 몸무게에 비해 지방이 많은거같아 딱봐도 물렁살 많고 같은키 몸무게보다 더 통통하거든ㅠㅠ 근력이랑 식이 둘 다 해야되지? 홈트로 되나.. 기숙사 살면 헬스장 못쓰고 헬스장 기도 기구 사용법을 몰라서ㅠㅠ 몸무게는 빼면 나한테 안좋대서 몸무게 유지하면서 지방만 빼고싶다..

(Topic 3) 나 퍼컬 봄라이트 진단 받았는데 1 명도가 중요하다고 하였고 무조건 상의 밝은거 입어야된다고 했구 또 이상하게 봄브라이트 났을 때 좀 선명해지기도 하는데 노래지는 감이 있어서 라이트로 진단받았거든!! 명도가 중요해서 어두운 색? 가을 겨울은 거의 넘어가셨어! 그럼 여름라이트랑 봄브라이트 중에는 뭐가 더 괜찮을까?? 이런거로는 모르나?

Topic 1, 2, 6, 9는 각각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요소(쌍꺼풀, 분위기, 자신감)과 자기 표현(카메라)[Topic 1], 학교(중학교), 취향(고양이, 강아지, 좋아하다, 피어싱)[Topic 2], 메이크업[Topic 6], 여드름과 메이크업[Topic 9]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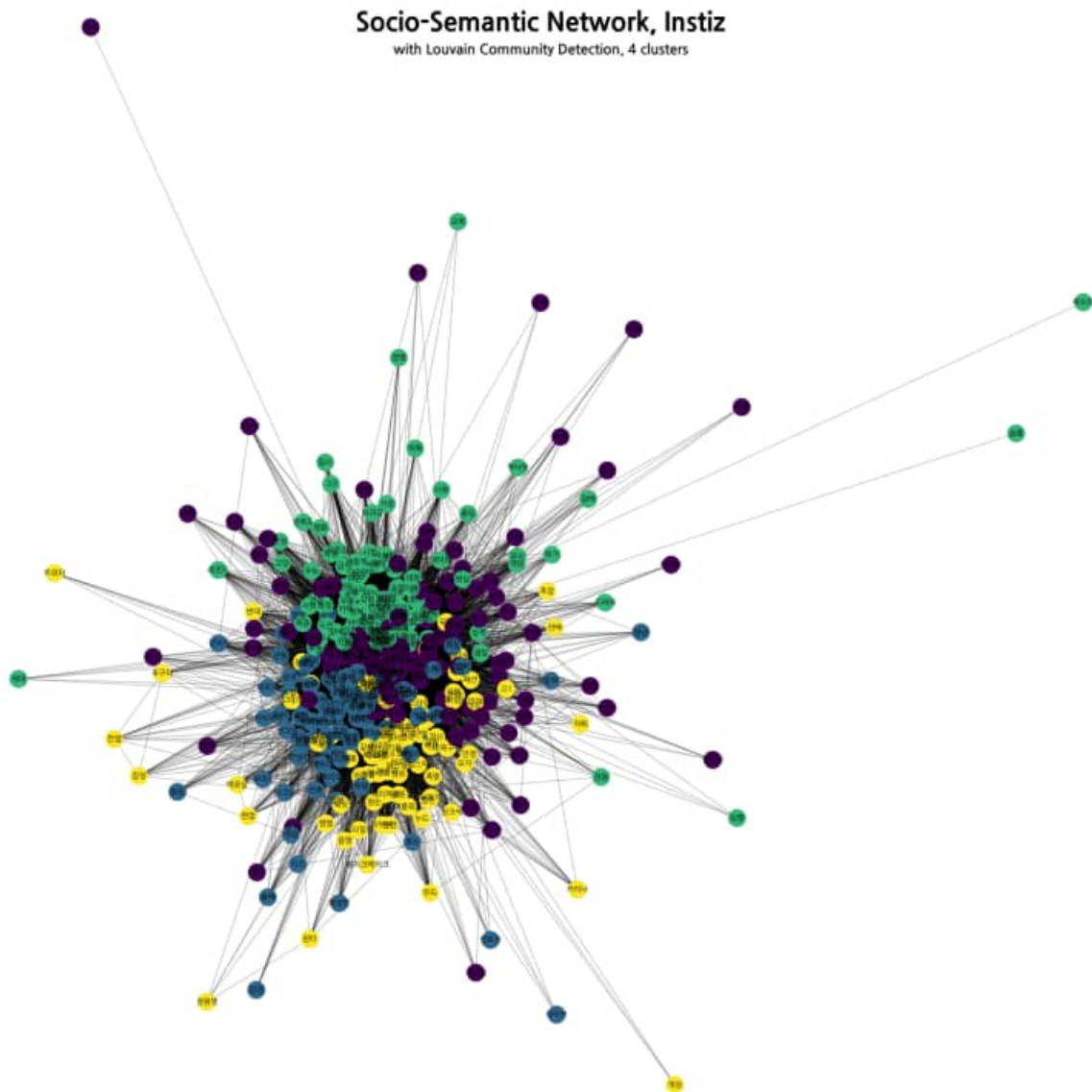
(Topic 1) 무쌍 쌍꺼풀 생겼다 사라진 사람 있어? 1 나 무쌍인디 한쪽눈에 쌍꺼풀 생겨서 지금 3일째 안없

어지는데 짝눈되고 쌍꺼풀이 너무 안이쁘게 생겨서 다시 없어졌으면 좋겠거든ㅜㅜ 없어질까? 쌍꺼풀 주름이 선명하게 잡혀서 지금은 무조건 쌍꺼풀 모양으로 떠져ㅜㅜ 진짜 자고일어났는데 그냥 생겼어 2n년 인생 처음으로... 근데 안이빠ㅜㅜ 검은동자를 오히려 더 가려서 줄려보여ㅜ 무쌍에 쌍꺼풀 생겼다가 며칠만에 돌아온 뽀 있어? 있으면 얼마만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얘기해주라ㅜㅜ

(Topic 2) 피어싱 염증났다가 다 낫고 나서 다시 뚫어도 괜찮을가요 ㅜㅜㅜ1 오른쪽귀에 연골피어싱 했다가 염증 엄청 심하게 나서 대학병원까지 갔었는데 지금도 약먹고있긴한데 오른쪽 귀는 다 나은거 같긴한데 아직 완치는 아닌거 같구요 당연히 오른쪽 귀엔 다시 못뚫고 왼쪽귀에 다시 피어싱 뚫으려 하는데 뚫어도 괜찮을가요 ㅜㅜㅜ 다들 말리긴하지만 너무 너무 뚫고 싶어요 피어싱뚫었을때 너무 이뻐서 피어싱 막히는게 싫어서 염증나서도 병원가길 미뤘을정도 .. ㅜㅜ 저번에 염증 난것도 뚫는과정에서 문제생겨서 염증난게 아니라 잘 아물고 있는데 제가 피어싱만지면서 귀에 자극이랑 세균감염 이런거때문에 염증난거라 왼쪽귀에 다시 뚫어도 되겠죠 ...? ㅜ 왼쪽귀도 염증나서 귀 모양 망가지면 진짜 클하는데 내 유일하게 멀쩡하게 모양살아있는 귀라 진짜 신중해야 하기도 해서 ... 열분들 같은 왼쪽귀에 뚫을거 같나요?

(Topic 6) 겨울 뺨들 눈두덩이에 새도우 뭐 써? ❄️4 내가 눈과 눈썹사이가 멀어서 그런지 눈두덩이에 새도우를 안 하면 뭔가 더 멀어보이고 비어보이는 느낌이라서ㅜㅜ 엄청 세세한 음영까지 바라지 않아.. 그냥 하나만이라도.. 바를 수 있는 새도우 없을까..? 새도우 대신 속눈썹을 짝 올리면 너무 부자연스러워보여서 새도우를 찾고 있어.. 펄새도우 말고 펄 없는 새도우 추천 부탁드립니다 ㄹ

(Topic 9) 이런 피부는 어떻게 관리 해야해? 혐오주의!7 여드름 심했는데 여드름은 이제 꽤 들어갔고 모공, 블랙헤드, 색소침착 관리하고 싶은데 괜찮은 제품 추천해 줄 분? 여드름, 모공, 색소침착, 블랙헤드 중에 뭘 먼저 해야 할까? 여드름 안 나았는데 노스카나겔 발랐다가 여드름 많이 나서 고민돼 ㅜ 조언 부탁행



Cluster 0: ['겨울', '스킨', '로션', '세수', '피부', '화장', '피지', '파데', '학생', '성인', '효과', '유명', '추천', '건성', '매트', '관리', '기초', '헤라', '관찰', '제품', '여드름', '크림', '파우더', '클렌징', '토너', '수분', '홍조', '건조', '쿠션', '피부과', '호수', '바닐라코', '파운데이션', '커버', '복합', '화장품', '브랜드', '침착', '자극', '블랙', '스킨케어', '여름', '유튜버', '에스쁘아', '마스크', '트러블', '흉터', '광고', '폴메', '일본', '하얏', '자국', '하얘지', '썬크림', '제형', '지속', '모공', '잡티', '고등학교', '기억', '유분', '컨실러', '오빠', '브러쉬', '퍼프', '다크닝', '프라이머', '표현', '장난', '나라', '팩트', '라네즈', '요철', '고1']

Cluster 1: ['얼굴', '인스타', '느낌', '좋아하', '주변', '핑크', '베이스', '색깔', '동생', '단발', '머리', '앞머리', '흑발', '참고', '렌즈', '브라운', '어울리', '진단', '새도우', '파우치', '피부색', '틴트', '에뛰드', '페리페라', '바지', '연예인', '관심', '퍼컬', '퍼스널', '컬러', '겨울', '이쁘', '립스틱', '어깨', '예쁘', '이목구비', '친구', '친하', '세상', '입술', '까말', '라이트', '사진', '도와주', '염색', '추구', '시선', '정보', '제니', '속눈썹', '뷰러', '마스카라', '인생', '블러셔', '손민수', '향수', '탈색', '갈색', '청순', '명품', '누드', '남자', '스타', '편하', '롬앤', '팔레트', '데일리', '패션', '아이라이너', '아이라인', '여쿨', '스타일링', '스타일', '모자', '베스트', '클리오', '헤어', '색조', '여리여리', '실물', '고데기', '치마', '수지', '가을', '매력', '눈썹', '삼푸', '웜톤', '벨벳', '필터', '여자', '쿨톤', '핑크색', '다크', '메컵', '분위기', '이미지', '애교', '셀카', '눈두덩이', '교복', '쉐딩', '성격', '인정', '객관', '사이즈', '포인트', '슬픔', '메이크업', '장원영', '여름뮤트', '유행', '웹툰', '예뻐', '생일', '데뷔', '모델', '못생기', '사랑', '꾸미', '보라색', '여쿨라', '음영', '슬프', '쌍얼', '영향', '아이돌', '강아지', '인기', '취향', '색감', '조화', '칭찬', '졸업', '여성', '안경', '강조', '다양', '컨셉', '아이폰', '웨이크메이크', '여신', '투명', '샤넬', '하관', '네일', '카메라', '남친', '뮤트', '화장법', '고양이', '선호', '키스', '데이트', '장점', '단점', '외모', '감성', '무드', '분석', '미인', '애꿏살', '썸남', '영화', '안유진', '졸사', '면접', '아이브', '고백', '남자애', '평범', '영어', '미술', '여친', '관계', '질투', '세대', '개성', '틱톡', '열등감', '원터', '자존심', '여고', '부러움', '일진', '카리나', '내신', '전학', '담임', '추구미']

Cluster 2: ['혼자', '다이어트', '저녁', '식단', '운동', '시간', '하체', '상체', '행복', '몸매', '자신감', '조절', '체형', '마르', '비만', '키로', '점심', '아침', '인바디', '체중계', '단식', '시작', '가능', '몸무게', '칼로리', '다리', '공복', '스트레스', '마름', '차이', '재밌', '건강', '노력', '변화', '힘들', '무리', '체중', '유지', '도전', '날씬하', '우울', '재수', '속상하', '정신', '코로나', '시험', '생리', '조건', '알바', '성공', '의지', '생활', '무시', '요요', '학교', '폭식', '기준', '정상', '집착', '유튜브', '바디', '학원', '다이어터', '과식', '약속', '학기', '방학', '의미', '연습', '기쁘', '영상', '자존감', '고3', '가정', '불안', '여행', '공부', '강박', '피곤', '새벽', '현실', '개학', '개념', '수업', '입시', '자괴감', '가족', '연애', '감동', '균형', '레전드', '수능', '급식', '사회', ' 짹사랑', '감정', '성적', '성향', '정시', '정병']

Cluster 3: ['지방', '엄마', '초딩', '고민', '생기', '쌍꺼풀', '쌍수', '라인', '이마', '해결', '짜증', '쌍꺼풀', '거울', '궁금하', '성형', '수술', '상담', '만족', '만족도', '한국', '한국인', '원하', '인터넷', '신기하', '신경', '얘기', '경험', '피어싱', '마음', '드라마', '검사', '제거', '필러', '선생', '가슴', '완벽', '나이', '보정', '기분', '교정', '서울', '후회', '이유', '대학', '시술', '어리', '걱정', '카페', '공감', '눈매', '이해', '반대', '자연', '콧대', '주름', '아빠', '의사', '불편', '표정', '상처', '만나', '쌍테', '인상', '부모', '중학교', '비교', '카톡', '눈물', '고딩', '감탄', '기대', '담배', '목소리', '말투', '찐따', '용돈', '선배', '미래', '중딩', '호감', '여중', '미감', '뉴진스', '자퇴']

B. 네이트판 10대 이야기

10대들의 미 담화는 학교라는 생활 공간과 소셜 미디어 환경 안에서 발아한다. 아래는 STM으로 추출한 9개 토픽이다. 4개 지표(Highest Prob, FREX, Lift, Score) 기반 상위 7개 단어들과 주제별 단어 확률 분포표를 참고해 토픽 이름을 라벨링했다. 주제 이름을 라벨링할 때 주로 참고되는 지표는 Highest Prob와 FREX인데 Highest Prob는 각 토픽 내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단어를, FREX는 각 토픽 내 자주 등장하면서도 배타적인 단어를 산출한다.

Topic 1 = 자존감, 인터넷, 카메라

Top Words:

Highest Prob: 자존감, 인터넷, 카메라, 이목구비, 피부과, 브라운, 자존심

FREX: 카메라, 자존감, 이목구비, 인터넷, 피어싱, 자존심, 브라운

Lift: 피어싱, 카메라, 이목구비, 자존감, 자존심, 인터넷, 피부색

Score: 피어싱, 자존감, 인터넷, 카메라, 이목구비, 브라운, 자존심

Topic 2 = 신체, 연애

Top Words:

Highest Prob: 다이어트, 속상하, 짹사랑, 유튜버, 쌍커풀, 카리나, 자신감

FREX: 다이어트, 속상하, 짹사랑, 카리나, 유튜버, 쌍커풀, 하얘지

Lift: 다이어트, 속상하, 하얘지, 스타일링, 카리나, 짹사랑, 안유진

Score: 다이어트, 속상하, 짹사랑, 유튜버, 쌍커풀, 카리나, 자신감

Topic 3 = 평가 요구, 열등감

Top Words:

Highest Prob: 어울리, 궁금하, 열등감, 아이폰, 데이트, 아이라인, 부러움

FREX: 궁금하, 아이폰, 열등감, 데이트, 어울리, 아이라인, 부러움

Lift: 아이폰, 데이트, 궁금하, 열등감, 부러움, 아이라인, 어울리

Score: 아이폰, 어울리, 궁금하, 데이트, 열등감, 아이라인, 부러움

Topic 4 = 분위기, 이미지, 코로나, 화장품

Top Words:

Highest Prob: 분위기, 코로나, 트위터, 이미지, 남자애, 마스크라, 속눈썹

FREX: 코로나, 트위터, 이미지, 분위기, 남자애, 속눈썹, 마스크라

Lift: 코로나, 이미지, 트위터, 남자애, 속눈썹, 분위기, 블러셔

Score: 코로나, 분위기, 트위터, 이미지, 남자애, 속눈썹, 마스크라

Topic 5 = 아이돌, 중학교

Top Words:

Highest Prob: 좋아하, 아이돌, 중학교, 강아지, 화장품, 브랜드, 아이브

FREX: 좋아하, 중학교, 강아지, 아이돌, 브랜드, 화장품, 아이브

Lift: 강아지, 좋아하, 중학교, 아이돌, 브랜드, 화장품, 아이브

Score: 강아지, 좋아하, 아이돌, 중학교, 브랜드, 화장품, 아이브

Topic 6 = 인스타, 유튜브, 연예인, 드라마

Top Words:

Highest Prob: 인스타, 유튜브, 연예인, 목소리, 드라마, 신기하, 레전드

FREX: 유튜브, 인스타, 목소리, 드라마, 연예인, 한국인, 레전드

Lift: 드라마, 목소리, 유튜브, 인스타, 한국인, 연예인, 레전드

Score: 드라마, 인스타, 유튜브, 연예인, 목소리, 신기하, 한국인

Topic 7 = 일상 이야기(스트레스, 마스크, 고양이 등), 개인화(퍼스널), 화장품

Top Words:

Highest Prob: 스트레스, 마스크, 고양이, 퍼스널, 팔레트, 에뛰드, 스킨케어

FREX: 마스크, 스트레스, 고양이, 팔레트, 썬크림, 에뛰드, 퍼스널

Lift: 마스크, 고양이, 스트레스, 썬크림, 다크닝, 데일리, 팔레트

Score: 마스크, 스트레스, 고양이, 팔레트, 스킨케어, 퍼스널, 에뛰드

Topic 8 = 고등학교, 꾸밈

Top Words:

Highest Prob: 고등학교, 스타일, 도와주, 장원영, 앞머리, 메이크업, 새도우

FREX: 도와주, 고등학교, 앞머리, 메이크업, 고데기, 스타일, 새도우

Lift: 고데기, 앞머리, 도와주, 메이크업, 고등학교, 화장법, 스타일

Score: 앞머리, 고등학교, 스타일, 도와주, 장원영, 고데기, 메이크업

Topic 9 = 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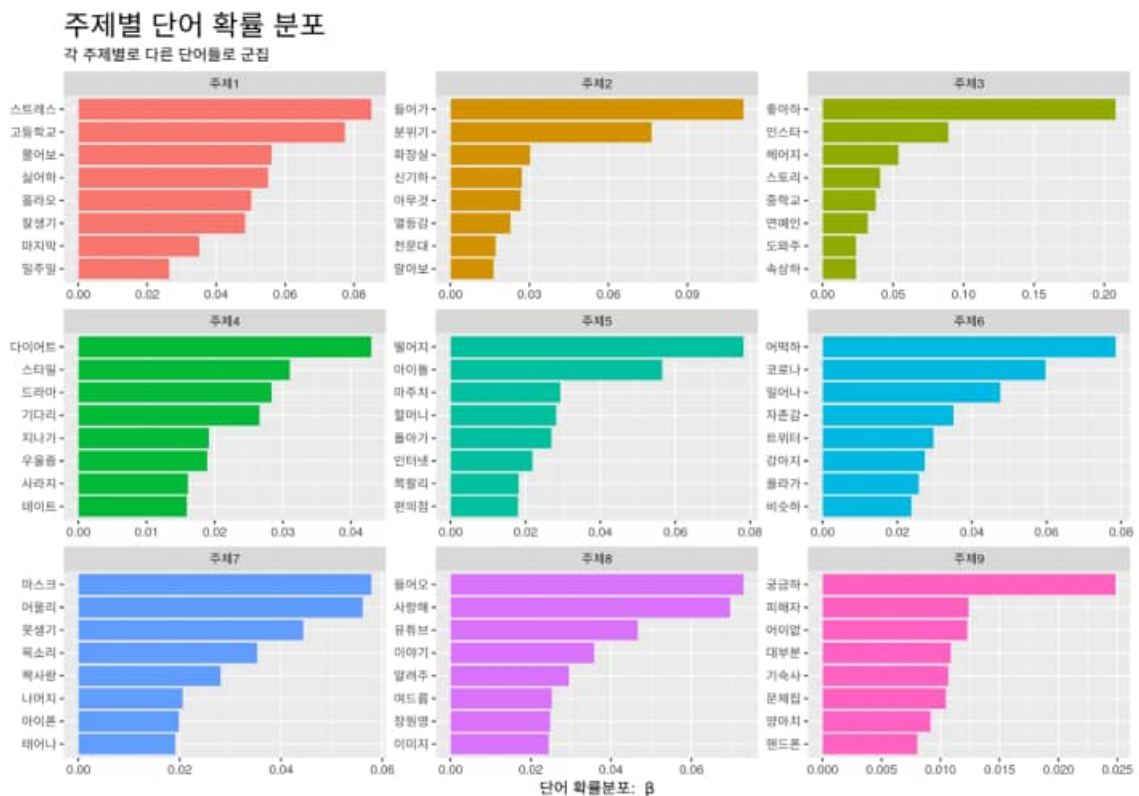
Top Words:

Highest Prob: 여드름, 베이스, 아이브, 손민수, 클렌징, 트러블, 베스트

FREX: 여드름, 클렌징, 트러블, 손민수, 베이스, 애꿏살, 아이브

Lift: 클렌징, 여드름, 바닐라코, 트러블, 추구미, 페리페라, 손민수

Score: 클렌징, 여드름, 베이스, 손민수, 트러블, 베스트, 아이브



Topic 5와 8은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사회적 공간인 “학교”와 자주 함께 등장한 단어들을 보여준다. “좋아하”, “아이돌”, “강아지”, “화장품” 등(Topic 5)과 “스타일”, “도와주”, “장원영”, “앞머리”, “메이크업”, “고데기” 등(Topic 8)이 그 예이다.

(Topic 5) 나 이제 당당하게 화장할수 있다 완전신나!!! 나 중3인데 화장에 관심 1도 없다가 올해 초에 좀 관심생겼거든 근데 갑자기 막 화장하고 이러면 좀 민망해서 언니화장품으로 몰래몰래 하고있었는데 오늘 눈썹그리다가 걸림 ㅋㅋ 근데 언니가 주말에 화장알라준뎡 나도 이제 내화장품 사야징 신난다

이로부터 10대가 학교에서 “스타일”, “메이크업”, “고데기” 등 외적 꾸밈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아이돌”, “장원영” 등 연예인 이미지를 미적 참고점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인스타, 유튜브, 연예인 등 소셜 미디어 및 방송 관련 토크만으로 구성된 Topic 6은 10대들이 미디어 속 셀레브리티를 미기준으로 내재화한다는 추론을 보강한다.

(Topic 6) 애들아 오 나의 귀신님 드라마 알아?!?! 개재밌어ㅜㅜㅜㅜㅜㅜ유튜브에 클립 뜨는거 보고 넷플에 잇길래 다 달림 흑흑 박보영 얼굴 개작고 조정석 잘생겼고 스토리도 은근 탄탄함...ㅠㅉㅠ. ㅉㅉㅉㅉ

Topic 2의 “ 짝사랑 ”과 Topic 4의 “남자애” 등 이성애 관련 단어들도 10대의 주요 미 주제 안에 등장했다. Topic 2에서 “다이어트”(신체 이미지)가 “ 짝사랑 ”과 “자신감”과 함께 나왔는데, 이는 신체 외형의 자기검열이 이성애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기 존중감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남자애”와 “분위기”, “이미지”, 화장품 관련 단어가 응집한 Topic 4로부터도 이성애에 대한 관심과 외적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함께 부상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Topic 2) 짝사랑 성공하는법 알려도라... 안농 난 15살이양!!(...)참고로 나 얼굴 나쁘지않고 키도 개랑 딱 10cm차이양. 이거 가능성 있는걸까..?

Topic 1은 “자존감”, “인터넷”, “카메라”, “이목구비”, “피부과” 등의 단어를 포함하는데, “카메라”를 이용한 자기 이미지 생성 및 확인이 “자존감”과 연결되며 “이목구비”를 중요한 미적 기준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진을 통해 자기 이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Topic 1)이목구비 뚜렷하면 청순하기 어렵다는데 솔직히 수지 전지현 강혜원 정채연 이런 청순한 연예인들

실제로 보면 이목구비 지니 뚜렷할걸 괜히 연예인이 아님 다 눈썹 코썹 입썹임 카메라라 그게 덜 부각되는 거지..^^ 이목구비가 밋밋한데 청순하면서 예쁘게 더 어려움

(Topic 1) 이래서 친구를 잘만나야 됨 난 내 얼굴이 조카 씨창난줄 알았었거든 이유가 1학년때 조카 예쁜 애랑 친해져서 무리로 다녔었는데 같은 무리애들이 얼굴크기로 오지게 꼽춰서 진짜줄 알았어. 그리고 지금 3학년때 새친구사겨서 예쁜애랑만 간간히 연락하고 그러는데 인생네컷 큐알코드 보니까 내가 조카 청초하게 생긴거야 조화도 싹오지고 그냥 까일만한 얼굴이 아닌데 까인거 진짜 아직도 자존감 낮았던 그 시절이 너무 아까움

Topic 9는 10대들이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적 조건을 드러낸다. 토픽을 구성하는 토큰은 “여드름”, “베이스”, “클렌징”, “트러블”, “컨실러” 등으로 모두 피부 미용과 직접 연결된다. Topic 9는 청소년들에게 피부가 주요한 미 기준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젊은 여성들이 아름다운 피부같이 꾸미지 않은 것 같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Seo et al., 2020). 하지만 본 논문의 설명처럼 꾸미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아름답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높은 지위를 향한 열망과도 연관이 있다(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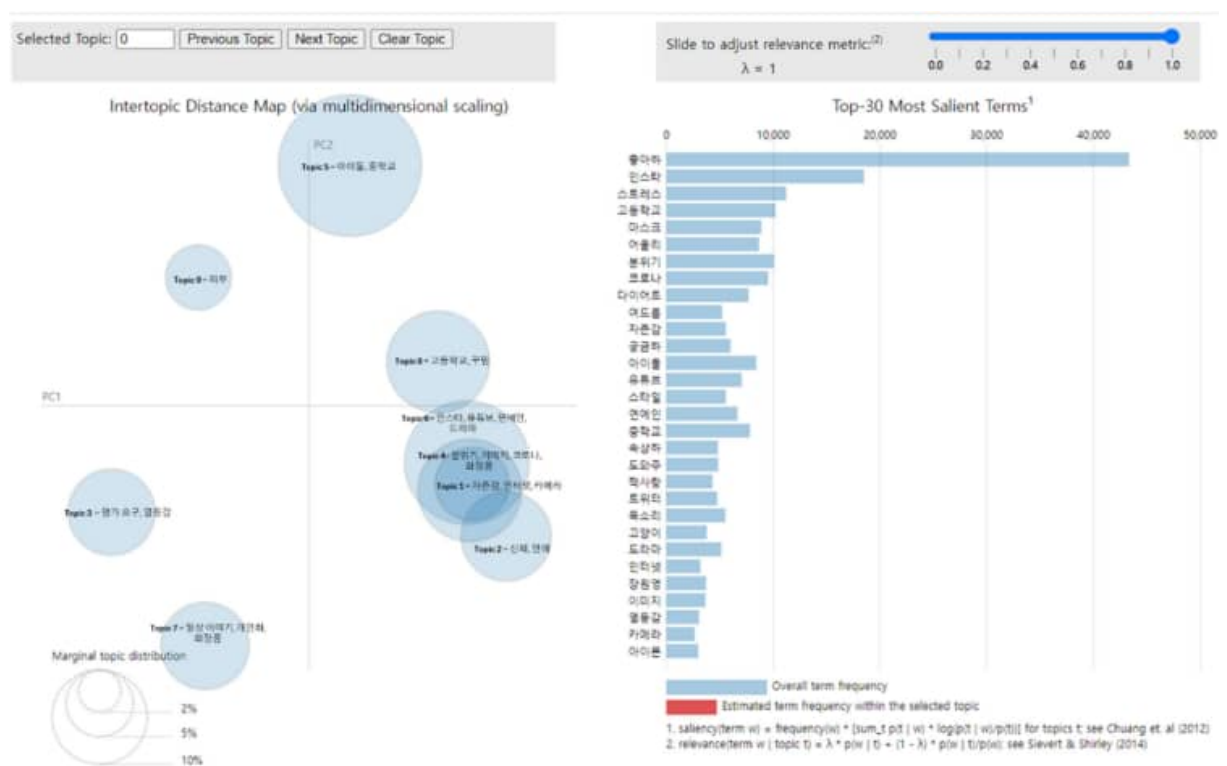
(Topic 9) 피부 안좋은 판녀들 들어와봐 우선 오일 클렌징 쓰고 있으면 피하셈 그게 유분 쌓아두는 역할 오지게 함.. 잘 안지워져도 그냥 폼클렌징으로 세번 씻어. 로션만 발라도 여드름 나는 체질 있을거임 토너로 수분 채우고 당긴다는 느낌 안날 정도로만 로션 조금 바르는 게 나옴

눈여겨보아야 할 주제는 Topic 3이다. 앞선 토픽들은 10대들의 미 기준, 또는 미적 이미지를 참조하고 표현하는 맥락을 묘사한다. 하지만 Topic 3의 상위 분포 단어는 “어울리”, “궁금하” 등으로 이들은 외모에 대한 평가를 타인에게 부탁할 때 주로 쓰인다. “열등감”, “부러움” 같이 비교를 통해 느끼는 감정은 평가를 요구하는 단어와 같은 주제로 등장할 확률이 높았다.

(Topic 3) 패션고자 도와주셈ㅠㅠ 이거 어때 바지에 저거 잘 어울림?? 안 어울리면 다른 상의 츠츠좀

(Topic 3) 난 죽을때까지 누구 부러워만 할듯 현재 내 모습에 만족을 못하는거 같고 열등감 오짐... 내얼굴 물론 예쁘다 생각함 근데 별로 그 소중함을 모르는거 같음 다른 예쁜 애들의 장점만 보고 내 장점을 소중히 여기질 않음 그렇다고 내가 못생긴건 아님 내얼굴 보면 와 이쁘다 생

각하는데 그러다가지도 다른 애들을 보면 난 별거 아닌거 같고 그럼... 예를 들면 거울 보다가도 A라는 애를 보면 재는 눈코입 완전 뽀뽀이네 부러워하고 B라는 애를 보면 재는 완전 수수하다 이럼서 부러워하고 그럼 π 속상하다 자존감 어떻게 올려? 답정너가 아니라 진짜 매일이 지옥같아 (Topic 3) 열등감 없고 비교 안하는 판녀 있냐 니한테 제발 비교하는 습관이랑 열등감 없애는 팁 좀 주라 제발 저 밑에 판녀 보고 생각났는데 나도 이러거든 그냥 그런 애들도 아니고 너무 잘난 애들이랑 비교하면서 힘들어해서 탈이야ㅏ 나도 자존감 높고 기 안 죽는 사람 되고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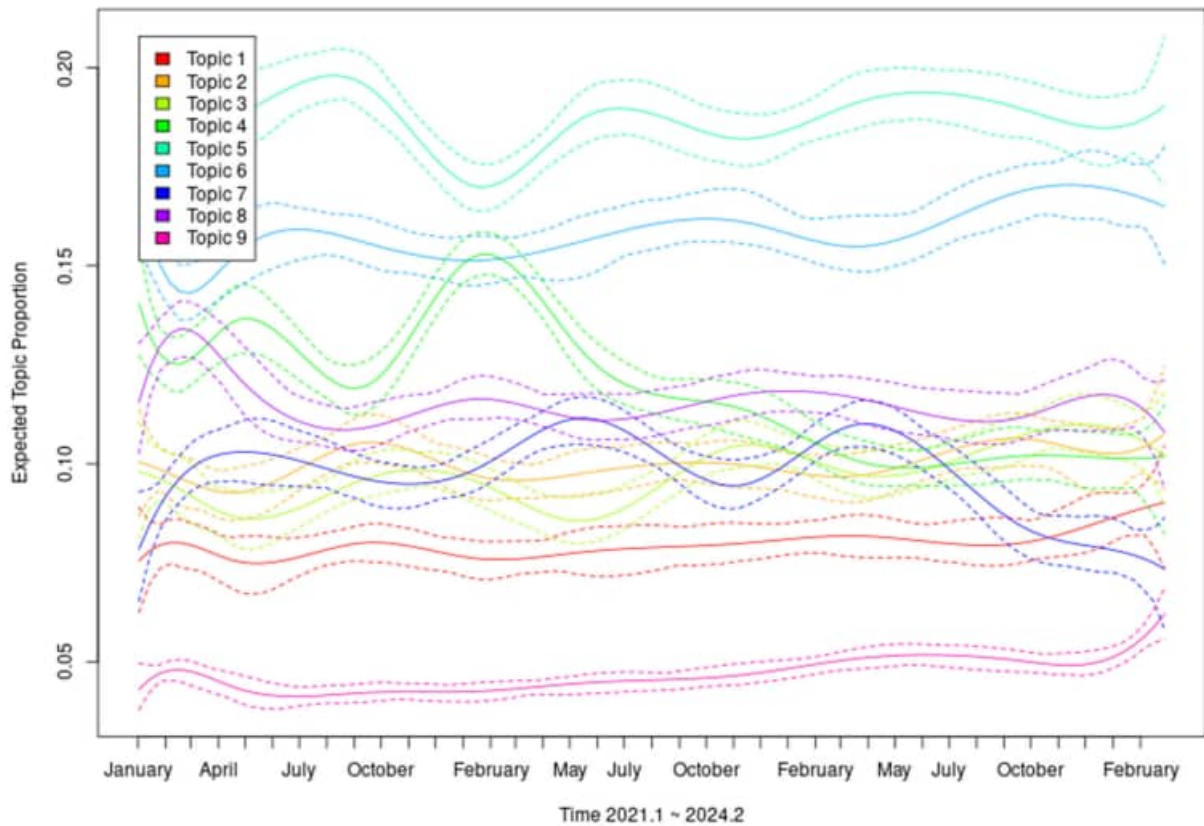
STM 결과를 바탕으로 Inter Topic Distance Map을 그려 토픽 간 거리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Topic 3과 가장 인접한 주제는 Topic 7이었다. Topic 7에 등장하는 단어는 “스트레스”, “마스크”, “고양이”, “퍼스널”, “팔레트”, “에워드” 등으로, 화장품 관련 용어를 포함하면서도 단일 주제로 포섭할 수 없는 단어(“스트레스”, “마스크”, “고양이” 등)도 있었다. 토큰화(tokenization) 과정 중 “퍼스널 컬러”에서 분리된 “퍼스널”도 등장했다. 우리는 토큰들이 한 개 주제로 응집하지 않는 Topic 7을 “일상 이야기, 개인화(퍼스널 컬러), 화장품”으로 라벨링했다.

(Topic 7) 퍼컬 진짜 개신기함 난 평생을 내가 워톤이라 생각하고 다 워톤 화장품으로 하고 다녔는데 진단 받을 때 핑크랑 레드립 바르니까 얼굴이 사는거임;;; 저스신기했음

(Topic 7) 진짜 공부 안하는게 더 스트레스라는거 ㄹㅇ이다 어젠 할만큼 해서 피곤해도 기분 좋았는데 오늘 공부 좀 덜하니까 진짜 개스크레스 받음 ㅠㅕ 살찌는거때문에 개스트레스받음 고3인데 독서실에 하루종일 앉아있으니까 살 저스 찜 살찌는스트레스>공부스트레스 임...

평가 요구와 열등감을 나타내는 Topic 3이 일상적 이야기와 연관된 Topic 7과 가깝다는 결과는 열등감이 단순히 외양과만 연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10대들의 평가 욕구와 타인과의 비교에서 나온 열등감이 미 주제 외에 어떤 맥락에서 논의되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뒤에 등장할 DATM이라는 새로운 토픽 모델링 기법을 시행해 토큰들의 네트워크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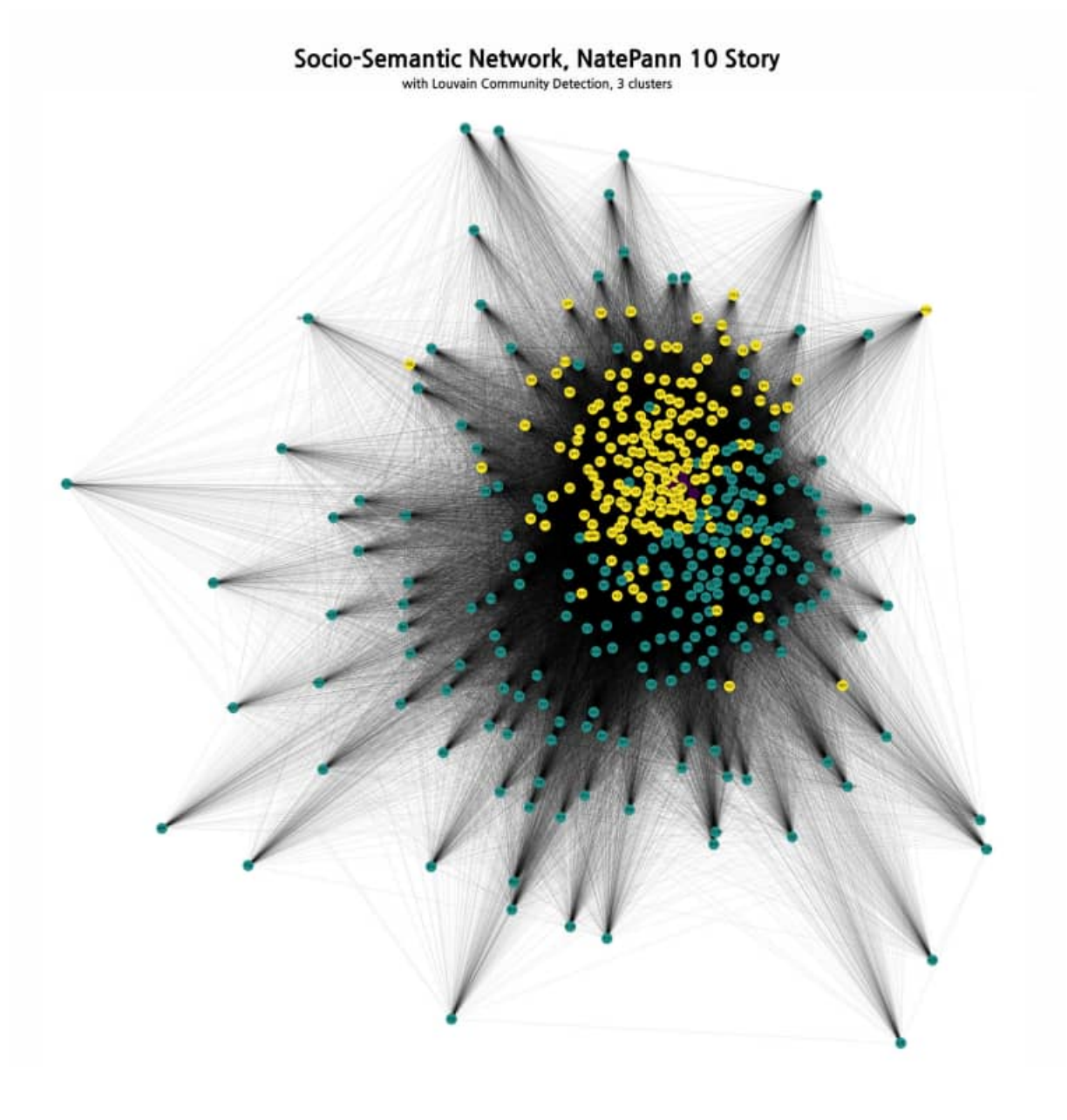
네이트판 10대 이야기의 STM 결과는 청소년의 미 담화가 주요한 사회적 생활 공간인 학교에서 자주 비롯한다는 걸 보여준다. 그들은 소셜 미디어나 방송에 나오는 셀레브리티를 미적 참고점으로 삼았으며 이성에 대한 관심과 신체 이미지 및 외양에 대한 관심이 함께 표출되었다. 자존감은 외모와 연관이 있었고 카메라를 통해 자기 이미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통해서 고양되거나 낮아졌다. 또한 10대들은 피부를 중요한 미 기준으로 삼았다. 평가 요구 및 열등감도 미 주제 중 하나로 등장했는데 이는 일상적 이야기를 대표하는 주제와 가까웠다. 10대들이 느끼는 열등감의 작동 기제를 더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DATM을 통해 관련 분석을 시행했다.



Topic	Topic 1	Topic2	Topic 3	Topic 4	Topic 5	Topic 6	Topic 7	Topic 8	Topic 9
Average Expected Topic Proportion	0.06013098	0.08871076	0.08455346	0.11943634	0.22478778	0.17882009	0.08303446	0.11415946	0.04636667

위는 네이트판 10대 이야기 각 토픽의 예상 분포를 그린 그래프이다. Topic 1(자존감, 인터넷, 카메라) = 6.01%, Topic 2(신체, 연애) = 8.87%, Topic 3(평가 요구, 열등감) = 8.45%, Topic 4(분위기, 이미지, 코로나, 화장품) = 11.94%, Topic 5(아이돌, 중학교) = 22.48%, Topic 6(인스타, 유튜브, 연예인, 드라마) = 17.88%, Topic 7(일상 이야기(스트레스, 마스크, 고양이 등), 개인화(퍼스널, 화장품) = 8.3%, Topic 8 (고등학교, 꾸밈) = 11.42%, Topic 9(피부) = 4.6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상위 분포를 이루는 세 개 토픽은 Topic 5(아이돌, 중학교), Topic 6(인스타, 유튜브, 연예인, 드라마), Topic 4(분위기, 이미지, 코로나, 화장품)으로, 이

들의 예상 분포 합은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52.30%). 이는 중학교, 연예인과 소셜 미디어, 분위기와 이미지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야기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루뱅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통해 네이트판 10대 이야기를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 두 개의 큰 클러스터가 구성되었다. 두 가지의 클러스터는 1) 사회적, 교육적 문제와 청소년 문화, 2) 외모, 패션, 트렌드에 대한 관심을 다루는 것으로 구성된다. 위 쪽의 노란색 클러스터는 ‘학교’, ‘공부’, ‘대학’, ‘수능’, ‘입시’, ‘성적’ 등 교육과 관련된 단어들과 ‘친구’, ‘성격’, ‘관계’, ‘질투’, ‘스트레스’ 등 개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단어를 포

함한다. 초록색 클러스터는 '화장', '다이어트', '유행', '패션', '외모', '연예인' 등 외모와 스타일에 집중된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다.

Cluster 1: ['남자', '친하', '여자', '무시', '수업', '질투', '학교', '좋아하', '치마', '바지', '알바', '면접', '평균', '괜찮', '궁부', '궁금하', '정시', '대학', '내신', '고등학교', '수능', '기준', '여고', '장점', '가정', '신경', '단점', '입시', '분위기', '편하', '얘기', '친구', '성격', '성적', '생기', '꾸미', '고3', '자퇴', '의지', '재수', '학생', '선생', '성공', '생각', '느낌', '기대', '중학교', '시험', '영어', '고민', '자존심', '기분', '만나', '가족', '약속', '속상하', '공감', '상담', '연애', '걱정', '이해', '나라', '운동', '현실', '인터넷', '찐따', '용돈', '아빠', '동생', '학원', '슬프', '기억', '서울', '인생', '스트레스', '오빠', '지방', '관리', '도와주', '우울', '상처', '남친', '생일', '부모', '행복', '표현', '졸업', '과목', '한국', '사회', '진심', '신기하', '말투', '이미지', '스타일', '성인', '엄마', '개념', '짜증', '노력', '미술', '방학', '시작', '애교', '매력', '이유', '새벽', '관심', '전학', '장난', '정신', '기초', '무리', '후회', '다양', '관계', '강조', '유지', '정보', '강아지', '조건', '눈물', '어리', '남자애', '나이', '의사', '자존감', '감정', '정상', '호감', '외모', '여친', '건강', '카톡', '불편', '칭찬', '여성', '생활', '연습', '만족', '고딩', '고1', '반대', '해결', '목소리', '한국인', '여중', '검사', '세대', '의미', '강박', '조절', '인정', '변화', '자극', '평범', '성향', '시선', '팩트', '담임', '데이트', '객관', '추구', '부러움', '자신감', '복합']

Cluster 2: ['표정', '자연', '짝사랑', '교복', '여름', '카페', '추천', '급식', '베스트', '일진', '선배', '연예인', '원터', '마스카라', '영화', '영상', '쌍수', '교정', '다이어트', '종딩', '이쁜', '머리', '얼굴', '코로나', '썸남', '고백', '염색', '사진', '인스타', '마르', '쌍꺼풀', '광고', '화장', '여행', '초딩', '앞머리', '어울리', '유튜버', '마스크', '베이스', '재밌', '다리', '하관', '화장품', '제품', '인기', '열등감', '눈썹', '클리오', '핑크', '가을', '여쿨', '담배', '속눈썹', '안경', '갈색', '필터', '틴트', '유튜브', '가슴', '셀카', '드라마', '일본', '수술', '패션', '인상', '헤어', '몸매', '이목구비', '학기', '피어싱', '트위터', '웹툰', '존예', '개학', '차이', '카리나', '화장법', '고양이', '레전드', '아이돌', '완벽', '피곤', '분석', '비교', '감성', '보정', '피부', '네일', '모자', '블랙', '향수', '파데', '퍼스널', '컬러', '명품', '샤넬', '브랜드', '유행', '여신', '립스틱', '정병', '집착', '자국', '홍터', '제니', '커버', '메이크업', '유명', '실물', '포인트', '건조', '지속', '폴메', '효과', '크림', '진단', '입술', '수분', '주름', '컨셉', '슬픔', '고데기', '렌즈', '컨실러', '다크', '새도우', '음영', '쿨톤', '청순', '감탄', '취향', '쌍얼', '세수', '로션', '클렌징', '틱톡', '안유진', '아이브', '뉴진스', '라인', '성형', '거울', '카메라', '키스', '스킨케어', '블러셔', '토너', '손민수', '세상', '장원영', '트러블', '쿠션', '데뷔', '미래', '줄사', '라이트', '브라운', '제거', '필러', '건성', '피지', '여드름', '피부과', '하얘지', '색깔', '흑발', '아이폰', '모공', '투명', '쉐딩', '색조', '요철', '파우더', '무드', '보라색', '미감', '에스쁘아', '벨벳', '바닐라코', '쌍테', '시술', '웜톤', '웨이크 메이크', '개성', '스킨', '아이라인', '아이라이너', '애긏살', '에뛰드', '퍼컬', '수지', '팔레트', '호수', '겨울', '페리페라', '다크닝', '뷰러', '핑크색', '여쿨라', '브러쉬', '퍼프', '미인', '매트', '홍조', '라네즈', '추구미', '피부색', '썸크림', '색감', '파우치', '침착', '헤라', '뮤트', '예뻐', '스타일링', '프라이머', '파운데이션', '룸앤', '누드', '데일리', '잡티', '메컵', '제형', '유분', '하얏', '까말']

우리는 1) 클러스터를 통해 10대 청소년들이 경험 중인 교육적 압력과 사회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한국 청소년들은 고도의 교육 경쟁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수능’, ‘입시’, ‘대학’, ‘내신’, ‘공부’, ‘수능’) 유추할 수 있었다. 2) 한국 청소년들의 또래 문화 상호작용을 통한 비교가 나타나고 있었다(‘기준’, ‘관계’, ‘평범’, ‘시선’, ‘관심’, ‘찐따’, ‘인정’). 특히 그들은 ‘평균’, ‘평범’ 등의 단어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다른 또래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상위나 특수한 상류층의 문화를 열망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중간 이상을 희망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주관적 계층 지위를 ‘평균 이하일까봐 걱정하는’ 불안의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파악해볼 수 있었다. 또한, 무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찐따’) 자신을 경계하거나, 찐따인 타인을 구별짓는 논의를 보였다. 3) 학생들은 학교, 또래 문화에서 비교와 경쟁을 통해 유발될 수 있는 부정적 감정(‘질투’, ‘자존심’, ‘슬픔’, ‘강박’, ‘불편’)에 대한 언급을 보였다. 4) 학교와 또래 문화는 외형적 요인(‘외모’)과 외적 평가(‘호감’, ‘칭찬’, ‘인정’)와 연결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이에 영향을 받고 변화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였다.

2) 클러스터를 통해서는 외모와 관련되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압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외모를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크게 외모 수행의 기준, 다양화된 자기표현, 자기표현의 도구에 관련된 단어들이 2) 클러스터에서 함께 등장하였다. 학생들은 특정 연예인(‘카리나’, ‘원터’, ‘아이돌’, ‘제니’, ‘수지’, ‘뉴진스’, ‘안유진’, ‘장원영’, ‘아이브’)들을 호명하면서 아름다움의 기준을 찾았다. 혹은 주변 또래의 선망하는 대상(‘ 짹사랑’, ‘선배’, ‘썸남’, ‘고백’)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논의가 등장했다. 학생들이 꾸밈을 수행하는 방식은 여전히 특정 부분은 단일한 차원으로 추구되고 있는 듯 하였으나 (‘하얗’, ‘잡티’, ‘마름’, ‘청순’, ‘다크닝’, ‘유분’, ‘쌍수’, ‘교정’), 특히 퍼스널컬러의 유행과 함께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었다(‘웜톤’, ‘겨쿨’, ‘여쿨라’). 학생들은 자신의 유형과 문제를 분석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손민수’). 아름다움을 수행하고자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뷰티 상품들을 소비하고 있었으며, 직접적인 브랜드에 대한 언급을 통해 효과와 가성비를 비교하는 모습을 보였다.

C. 네이트판 뷰티톡

네이트판 뷰티톡에서 STM으로 추출한 9개 토픽과 각 주제별 단어 확률 분포, Intertopic Distance Map 결과는 아래와 같다.

Topic 1 = 연예인과 소셜 미디어, 자존감, 중학교, 이성

Top Words:

Highest Prob: 장원영, 인스타, 마스크, 자존감, 중학교, 트위터, 짹사랑

FREX: 인스타, 마스크, 장원영, 자존감, 중학교, 짹사랑, 트위터

Lift: 마스크, 인스타, 자존감, 짹사랑, 장원영, 중학교, 트위터

Score: 마스크, 인스타, 장원영, 자존감, 중학교, 짹사랑, 트위터

Topic 2 = 유튜버, 화장품, 열등감

Top Words:

Highest Prob: 유튜버, 라이트, 페리페라, 트러블, 에스쁘아, 열등감, 드라마

FREX: 유튜버, 트러블, 드라마, 라이트, 열등감, 에스쁘아, 파우치

Lift: 드라마, 유튜버, 트러블, 파우치, 에뛰드, 열등감, 속상하

Score: 드라마, 유튜버, 트러블, 에스쁘아, 라이트, 페리페라, 열등감

Topic 3 = 외적 이미지, 고등학교

Top Words:

Highest Prob: 좋아하, 분위기, 스타일, 스트레스, 이목구비, 고등학교, 이미지

FREX: 분위기, 좋아하, 스타일, 이목구비, 데일리, 이미지, 고데기

Lift: 데일리, 분위기, 좋아하, 스타일, 이목구비, 고데기, 이미지

Score: 데일리, 좋아하, 분위기, 스타일, 스트레스, 이목구비, 고등학교

Topic 4 = 화장품

Top Words:

Highest Prob: 파우더, 아이라인, 바닐라코, 애꽃살, 아이라이너, 썬크림, 데이트

FREX: 파우더, 애꽃살, 썬크림, 바닐라코, 아이라인, 아이라이너, 아이폰

Lift: 파우더, 썬크림, 아이폰, 애꽃살, 바닐라코, 아이라이너, 아이라인

Score: 파우더, 아이라인, 바닐라코, 애꽃살, 썬크림, 아이라이너, 데이트

Topic 5 = 얼굴과 신체, 연예인과 유튜브

Top Words:

Highest Prob: 화장품, 여드름, 다이어트, 앞머리, 연예인, 유튜브, 브라운

FREX: 여드름, 다이어트, 피부과, 화장품, 브라운, 유튜브, 연예인

Lift: 피부과, 여드름, 하얘지, 브라운, 다이어트, 유튜브, 부러움

Score: 피부과, 여드름, 화장품, 다이어트, 브라운, 연예인, 유튜브

Topic 6 = 화장, 연예인, 카메라

Top Words:

Highest Prob: 메이크업, 카리나, 뉴진스, 궁금하, 화장법, 아이브, 카메라

FREX: 카리나, 메이크업, 아이브, 화장법, 뉴진스, 안유진, 궁금하

Lift: 카리나, 안유진, 아이브, 메이크업, 화장법, 카메라, 뉴진스

Score: 카리나, 메이크업, 뉴진스, 아이브, 화장법, 안유진, 궁금하

Topic 7 = 화장, 개인화(“퍼스널”)와 모방(“손민수”), 추구미

Top Words:

Highest Prob: 어울리, 마스크라, 새도우, 속눈썹, 퍼스널, 목소리, 추구미

FREX: 어울리, 속눈썹, 마스크라, 새도우, 손민수, 피어싱, 퍼스널

Lift: 피어싱, 속눈썹, 어울리, 손민수, 한국인, 보라색, 마스크라

Score: 피어싱, 어울리, 속눈썹, 마스크라, 새도우, 퍼스널, 손민수

Topic 8 = 아이돌, 피부

Top Words:

Highest Prob: 아이돌, 베이스, 팔레트, 클렌징, 도와주, 쌍꺼풀, 고양이

FREX: 클렌징, 도와주, 베이스, 팔레트, 피부색, 파운데이션, 아이돌

Lift: 레전드, 파운데이션, 클렌징, 도와주, 라네즈, 피부색, 베이스

Score: 레전드, 아이돌, 클렌징, 베이스, 팔레트, 도와주, 여쿨라

Topic 9 = 색조 화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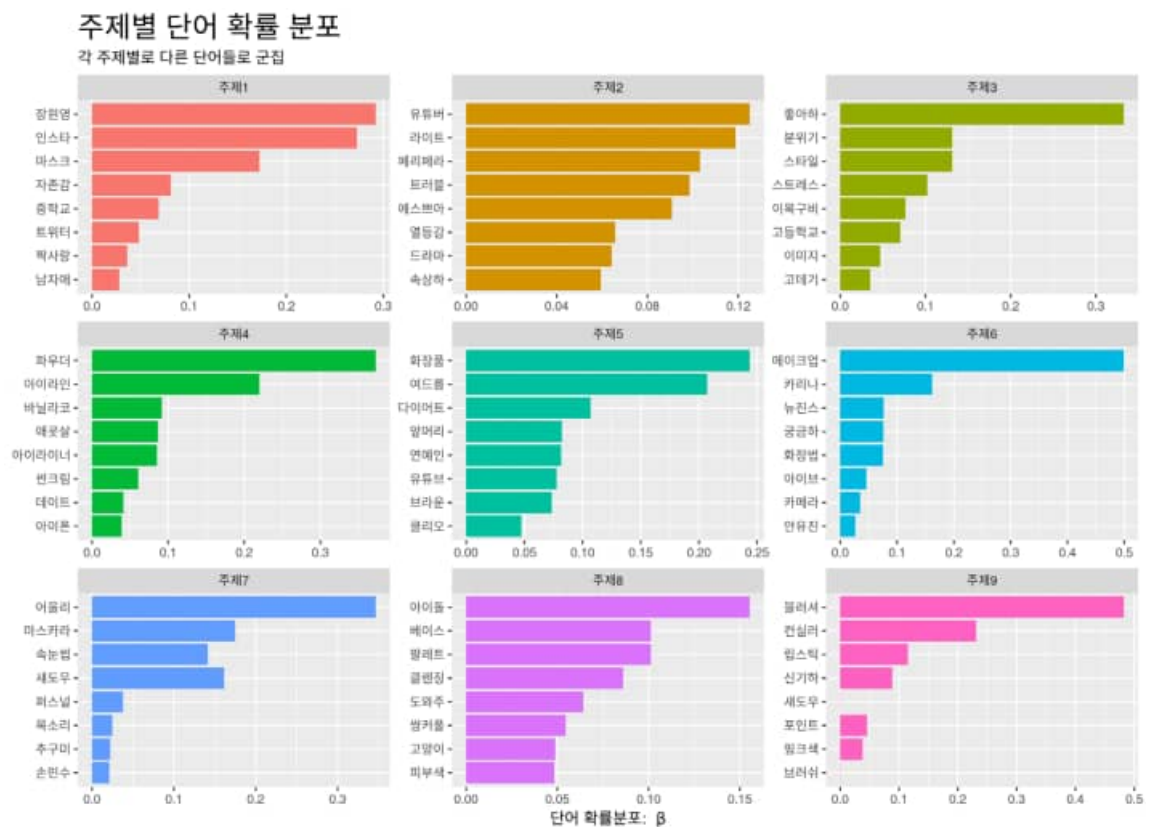
Top Wo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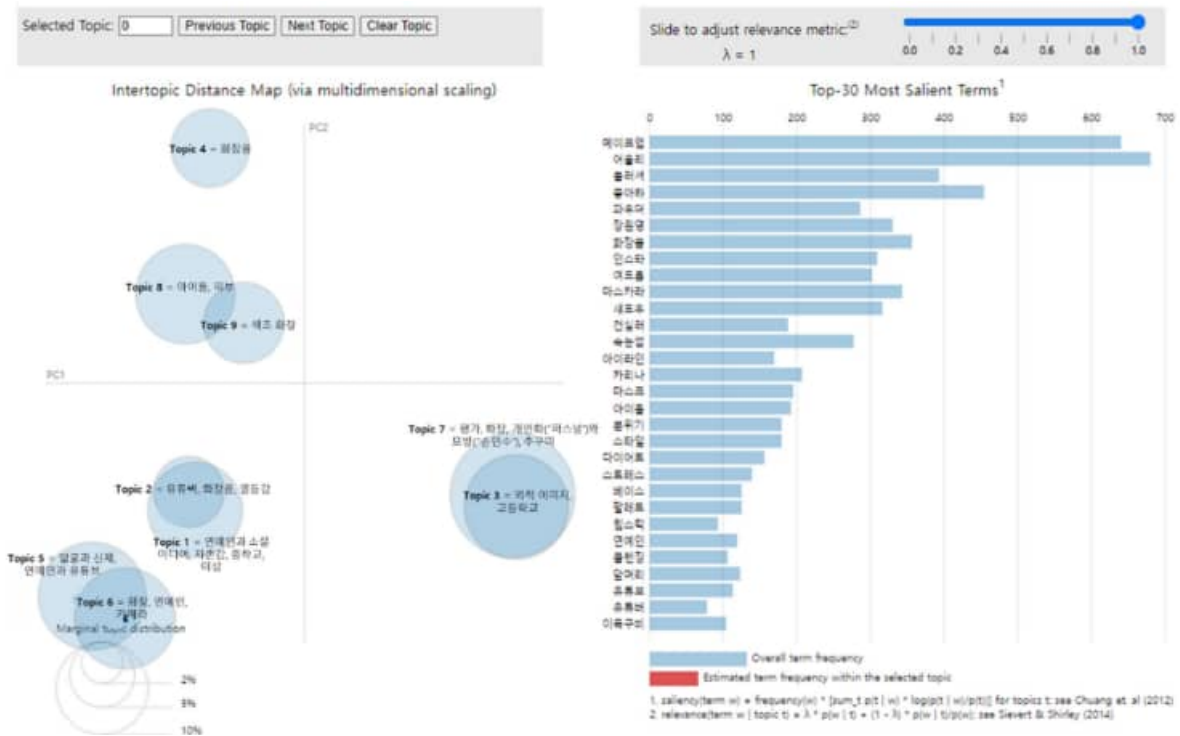
Highest Prob: 블러셔, 컨실러, 립스틱, 신기하, 포인트, 핑크색, 브러쉬

FREX: 블러셔, 립스틱, 컨실러, 신기하, 포인트, 핑크색, 브러쉬

Lift: 립스틱, 블러셔, 컨실러, 신기하, 핑크색, 포인트, 브러쉬

Score: 립스틱, 블러셔, 컨실러, 신기하, 핑크색, 포인트, 브러쉬





STM이 도출한 9개 토픽의 단어 확률 분포를 참고해 주제 이름을 라벨링했다. 네이트판 뷰티톡은 네이트판 10대 이야기보다 토픽 간 구분이 미묘했는데, 10대 이야기 게시판에서 뷰티 관련 글만 자체 필터링해 모은 곳이라 아주 좁은 영역으로 글의 주제가 축소했기 때문이다.

Intertopic Distance Map 결과 [Topic 1, 2, 5, 6], [Topic 4, 8, 9], [Topic 3, 7]이 각각 군집을 이뤘다. [Topic 1, 2, 5, 6]은 연예인,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 카메라, 자존감, 중학교, 이성 등을 주제어로 포함한다. 이는 10대들이 소셜미디어와 방송, 유튜브에 나오는 셀레브리티를 자주 참조하며 그런 상향된 미 기준이 자존감과도 연관이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Topic 2로 분류된 토크 "열등감"을 문서 본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또래가 자신보다 외모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할 때나 소셜 미디어와 주변에서 패션-뷰티 관련 지출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며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 이를 통해 미를 둘러싼 자존감이 단순한 외적 모습뿐만 아니라 주변 또래 유형, 외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능력 등 복합적인 요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Topic 1) 예뻐지니까 장원영 빠질 그만두게됨 좀 장원영에 자아의탁 해서 하루종일 설드넷글 달고 다녔었는데 올해 큰맘먹고 다이어트하고 화장도 하고 예뻐지니까 이제 그런거에 시간을 안 쏟는듯

(Topic 2) 내친구 중에 저노이쁜 애 있는데 개한테 열등감 느껴짐 진짜 내 친구 중에 웬만한 인스스보다 이

쁘고 뽀 중국보정 100씩 떡칠한 거 마냥 비현실적으로 생긴 애가 있는데 개량만 있으면 저 열등감 느껴지고 내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못생겨보여서 미칠 것 같음(...) 물론 개가 진짜 이쁜 거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눈으로 보면 진짜 이런 얼굴로 살면 어떤 기분일까 싶고 우울함어제도 개랑 놀고와서 집에서 울었음ㅋㅋㅋㅋㅋㅂㅅㅈ 성격은 진짜 진짜 착하고 나 엄청 좋아해서 나도 애가 좋긴한데 솔직히 같이 있기 너무 힘들어.. 어케 고칠 수 있을까?ㅠ

(Topic 2) 진짜 요즘 상대적 박탈감 오짐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집 못 산다고 생각해본 적 없음 한 달에 천 이상은 버니까.. 근데 인스타나 틱톡보면 내가 개저지같음ㅋㅋ 난 명품은 화장품 말고는 손 대본 적도 없는데 인스타 틱톡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학교에도 프라다 백팩 버버리 백팩은 기본이고 입고 다니는 기본 후드티도 아미나 스톤아일랜드처럼 후드티 한 장에 20-30은 넘는 거 입고 악세사리는 티파니 미우미우 비비안 웨스트우드 이런거고 쓰는 쿠션도 디올이나 입생로랑같은 10만원은 넘는 거 보니까 강 미친거같음 우리집이 너무 거지같아보여 어쩌면 열등감이 맞기도 하겠지만 이게 맞는지는 생각이 듭

[Topic 4, 8, 9]는 화장과 피부 관련 주제들이다. Topic 4는 화장품(“파우더”, “바닐라코”)과 화장 기법(“아이라인”, “애긔살”), Topic 8은 “아이돌”, “베이스”, “클렌징”, “쌍꺼풀” 등 미적 기준과 피부를 대표한다. Topic 9는 “블러셔”, “립스틱”, “핑크색” 등 색조화장과 직접 유관한 단어들을 포함했다. 이들 토크는 10대들이 자신의 피부 타입과 색, 퍼스널 컬러에 맞는 화장(품)을 물어보고 공유하는 맥락 안에서 주로 등장했다.

(Topic 4) 여름 파데 추천해줘.. 원래 수부지인데 여름이라 강 지성..세미매트파고 끈거 필요없고 지속력+밀착력만 우수했음 좋겠어!!! 올리브영, 백화점 다 좋으니까 추천해주라 ㅠㅈ 원래는 바닐라코 리뉴얼전꺼 썼었는데 그냥 그래서 바꿀예정

(Topic 4) 내 얼굴에 맞는 화장좀ㅠㅠ 확실히 쿨톤같은데 풀메 할수록 뭔가 답답해보이고 미백선크림에 파우더랑 뷰러 약간 애긔살 얇게만 하는게 어울려... 볼살 많고 눈은 트인 속쌍이야 피부는 검은편 여기서 뭘 더 해야 더 이뻐질까ㅠㅠㅠㅠ 나도 색조 쓰고싶은데ㅠㅠㅠㅠ

(Topic 8) 나만 연한 화장 못하겠나... 청순하고 시퍼서 화장 좀 덜고싶는데 애긔살 뽀! 쉐딩뽀! 아라 쉐도우 뽀뽀 립 뽀 안 하면... 안예뵈 조로나 아이돌무대메컵마냥 하고다녀야 뽀 ㅠㅈ ㄹ 밀짚처럼 저 정도로 화장함개존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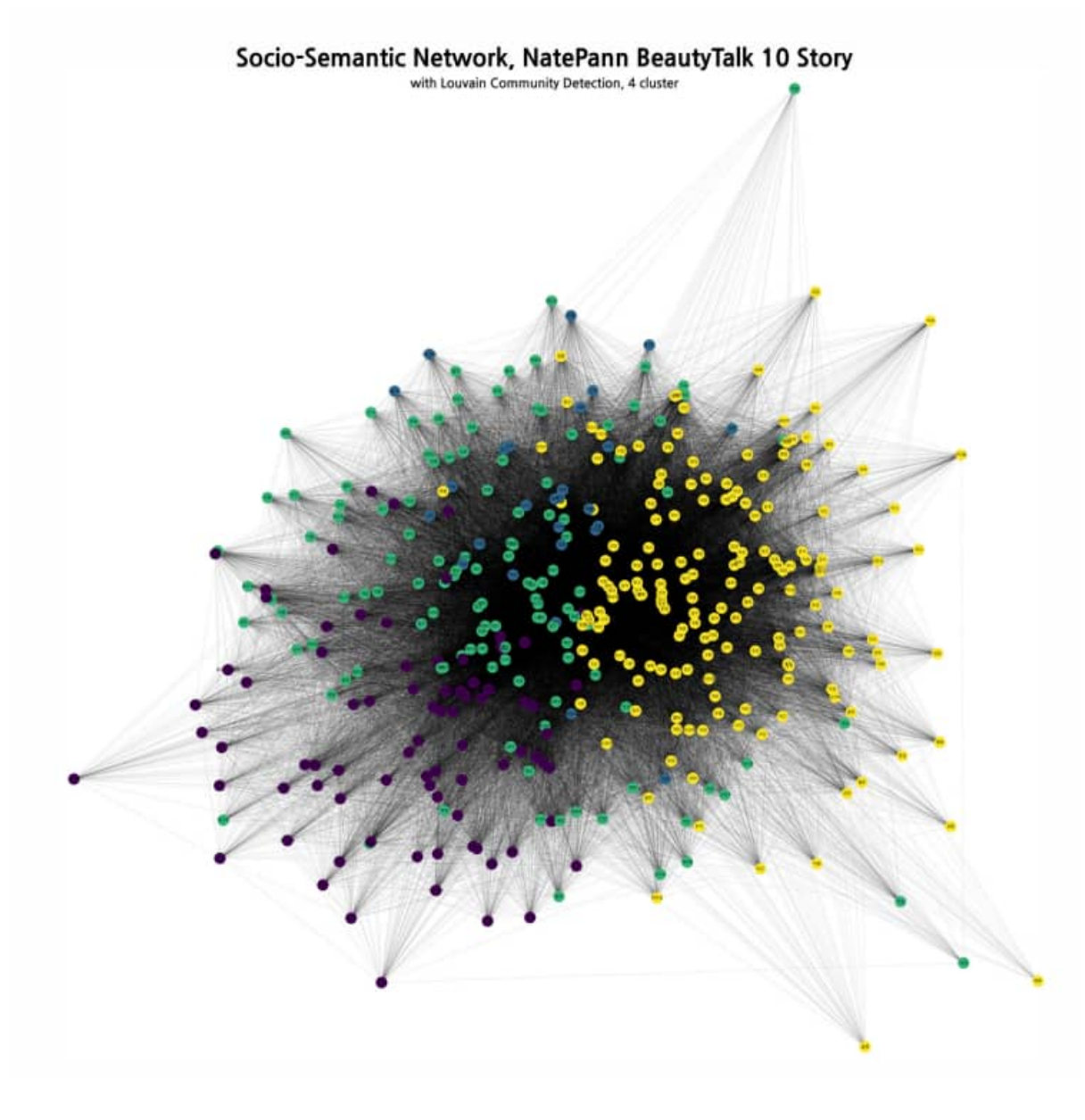
(Topic 9) 여쿨라 블러셔 뭐사지 추 롬앤 블러셔 02스토리베리밀크반 썬 블러셔 멜로우 05립미라이트

[Topic 3, 7]은 외적 이미지(“분위기”, “스타일”), 화장, 고등학교, 그리고 미를 추구하는 방향성(“퍼스널”, “손민수”, “추구미”) 등 다양한 주제어를 아울렀다. 일견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상반된 방향처럼 보이는 “퍼스널”과 “손민수”가 같은 주제(Topic 7) 아래 등장했는데, “손민수” 즉 누군가를 모방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퍼스널”한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욕망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본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Topic 7) 하니 손민수 하고싶은데 하니 메이크업/얼굴 특징이 뭐임??내 추구미 하니임 $\pi\pi$ 뽀한거라도 써 주고가라

(Topic 7)다들 연예인 손민수 제발 하고 다니셈 나 맨날 하루하루 다르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연예들 화장이나 머리스타일 이런거 손민수 해서 다니거든? 근데 내가 화장을 진짜옛날부터 해서 꽤 잘하는 편이라 그런지 몰라도 진심 삶의질 올라감ㅋㅋㅋㅋ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다니다가 애들이 다 나랑 잘 어울린다고 한 화장으로 졸사 찍을때나 놀러갈때 하면 개꿀임ㅋㅋㅋ 다들 해봐 재밌음ㅋㅋㅋ

(Topic 7)이거 봄웜이야 여쿨이야?알려주면 수능 잘 봄 이런 톤이 잘 어울리는데봄웜라 아님 여쿨라 같은디 잘 모르겠음 π 이런 색은 확실히 안 어울렸는데내가 뮤트 아닌건 확실하지??제발 알려주라 $\pi\pi\pi\pi$



Cluster 0: ['흉터', '피부', '여드름', '하얗', '쿠션', '추천', '고민', '화장품', '헤라', '파데', '표현', '지속', '썬크림', '크림', '바닐라코', '쉐딩', '여쿨라', '인터넷', '베이스', '건조', '건성', '기초', '퍼프', '아이라이너', '블러셔', '트러블', '스킨', '로션', '세수', '커버', '팔레트', '라네즈', '페리페라', '모공', '스킨케어', '매트', '유분', '파우더', '피부과', '누드', '제형', '립스틱', '웨이크메이크', '효과', '컨실러', '스트레스', '에스쁘아', '다크닝', '광고', '까말', '파운데이션', '자극', '복합', '클리오', '자극', '잡티', '클렌징', '수분', '토너', '조건', '제품', '피부색', '홍조', '다크', '호수', '피지', '프라이머', '제거', '여름', '벨벳', '요철', '브러쉬', '정보', '하얘지', '침착', '룸앤', '완벽', '만족', '샤넬', '팩트', '에뛰드', '파우치']

Cluster 1: ['관리', '검사', '아이돌', '나라', '성형', '시술', '유행', '유명', '다이어트', '장점', '단점', '몸매', '운동', '궁금하', '조절', '데뷔', '한국', '패션', '스타일링', '분석', '변화', '교정', '연습', '건강', '매력', '한국인', '표정']

Cluster 2: ['틴트', '썸남', '화장', '분위기', '사진', '입술', '자연', '얼굴', '거울', '카메라', '셀카', '보정', '여신', '장원영', '새도우', '브랜드', '인스타', '차이', '마스카라', '쌍꺼풀', '어울리', '이목구비', '취향', '메이크업', '핑크', '라이트', '퍼컬', '이쁘', '느낌', '데일리', '개념', '색깔', '유튜브', '영상', '아이라인', '속눈썹', '이미지', '연예인', '쌍수', '애교', '강조', '음영', '라인', '수술', '쌍꺼풀', '필러', '하관', '스타일', '웜톤', '쿨톤', '색감', '렌즈', '참고', '아이폰', '눈썹', '카리나', '윈터', '핑크색', '의사', '뉴진스', '블랙', '애꿏살', '유트', '브라운', '유튜버', '컬러', '베스트', '뷰러', '네일', '아이브', '화장법', '추구미', '가을', '안경', '정상', '주름', '투명', '앞머리', '염색', '갈색', '흑발', '겨울', '가슴', '트위터', '색조', '일본', '퍼스널', '진단', '틱톡', '수능', '무드', '헤어', '여쿨', '메컵', '포인트', '추구', '향수', '고데기', '보라색', '쌍테', '미감', '레전드', '손민수', '감성', '드라마', '미인', '실물', '청순', '인상', '고양이', '제니', '컨셉', '존예', '후회', '줄사', '객관', '개성', '입시', '필터', '안유진', '자신감', '수지', '미술']

Cluster 3: ['엄마', '학원', '친구', '개학', '교복', '학교', '동생', '좋아하', '남자', '생기', '남자애', '새벽', '생각', '짜증', '연애', '나이', '남친', '만나', '여자', '여고', '폴메', '피곤', '현실', '시간', '미래', '찐따', '친하', '성격', '관심', '기분', '시작', '진심', '고딩', '학기', '수업', '영화', '의지', '감정', '평균', '괜찮', '시선', '머리', '정병', '이해', '비교', '꾸미', '대학', '이유', '알바', '걱정', '생일', '여행', '외모', '무리', '해결', '얘기', '기준', '불편', '마스크', '초딩', '우울', '담배', '일진', '피어싱', '학생', '사랑', '어리', '인생', '무시', '슬프', '상담', '마르', '치마', '바지', '자존감', '부모', '속상하', '생활', '공부', '도와주', '유지', '오빠', '시험', '고1', '여친', '정시', '자퇴', '부러움', '강박', '신경', '인정', '인기', '아빠', '반대', '호감', '신기하', '성인', '전학', '말투', '서울', '고3', '재밌', '가족', '기억', '내신', '성적', '방학', '관계', '재수', '고등학교', '편하', '중딩', ' 짝사랑', '노력', '중학교', '정신', '마음', '용돈', '강아지', '졸업', '약속', '눈물', '다양', '장난', '기대', '행복', '카페', '다리', '공감', '상처', '여성', '면접', '키스', '카톡', '세대', '지방', '담임', '질투', '열등감', '명품', '칭찬', '세상', '고백', '슬픔', '코로나', '여중', '평범', '급식', '영어', '모자', '선배', '예뻐', '선생', '의미', '목소리', '가정', '집착', '성공', '데이트', '사회', '자존심', '웹툰', '과목', '성향', '감탄']

네이트판 뷰티톡은 네이트판에서 자동적으로 추출한 뷰티 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최근 1년의 네이트판 10대 이야기의 글을 분류해둔 게시판이다. 네이트판 뷰티톡에 등장한 단어들을 대상으로 루뱅 커뮤니티 알고리즘을 수행한 결과, 네 개의 클러스터가 도출되었다. 클러스터 0은 피부 관리와 미용에 대한 관심에 집중하고 있었다('피부', '화장품', '스킨케어'). 클러스터 1은 사회적 지위와 아이덴티티와 그에 가까워지기 위한 변화 수행에 관한 단어들이 등장했다('아이돌', '패션', '한국인', '성형'), 클러스터 2는 소셜미디어와 자기 표현에 관한 단어들이 등장했다('인스타', '셀카', '유튜브', '메이크업', '화장'). 클러스터 3은 사회적 관계와 개인 감정에 관한 단어들이 등장했다('친구', '학교', '연애', '감정', '스트레스')

클러스터 0은 주로 피부 관리와 관련된 제품 및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클러스터의 단어들은 청소년들이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압력을 내면화하고 있고, 뷰티 제품과 화장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에서는 외모가 개인의 사회적 성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식된다. 청소년들은 외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부’, ‘화장품’, ‘스킨케어’ 등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인정을 얻는 수단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보인다.

클러스터 1은 ‘아이돌’, ‘패션’, ‘한국인’, ‘성형’ 등과 같은 사회적 지위나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용어들을 포함한다. 이는 한국 청소년들이 사회적 인정과 소속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반영한다. 특히 ‘성형’이나 ‘아이돌’과 같은 용어는 높은 외모 지상주의와 연결되어 있고, 이는 비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아이돌’에 대한 선망으로 나타난다. 청소년들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도달하고자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이며(‘성형’), 이 모든 과정은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외모를 중시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클러스터 2는 ‘인스타’, ‘셀카’,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 관련 용어와 함께 ‘메이크업’, ‘화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클러스터는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외모와 스타일을 표현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외모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온라인 상의 외모 관련 콘텐츠는 청소년들의 자기 최적화 문화를 반영하고, 청소년들에게 특정 미의 기준을 강조하는 관계를 보인다.

클러스터 3은 ‘친구’, ‘학교’, ‘연애’ 등 사회적 상호작용과 ‘감정’, ‘스트레스’와 같은 개인적 감정을 다루는 용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클러스터는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감정과 관계적 도전을 보여준다. 학교 생활과 친구 관계는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자아 정체성 형성과 감정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네이트판 10대 이야기와 네이트판 뷰티톡 비교 결과, 네이트판 10대 이야기는 교육적 압력, 사회적 영향, 개인적 감정, 외모 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며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광범위한 이슈를 다룬다. 이 게시판은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정체성 형성 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교육 경쟁, 또래 문화, 자아 정체성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및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네이트판 뷰티톡은 주로 외모와 미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피부 관리, 화장품 사용, 외모 개선 방법

등 특정 주제에 국한된 토론을 제공한다. 이 게시판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외모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사회적 압력을 반영하며, 사회적 지위나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내용은 다루고 있지만 주로 외모와 관련된 자기 표현의 도구로서의 논의에 집중된다. 청소년들이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반영하면서 교육적 또는 더 넓은 사회적 맥락은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지는 경향이 포착되었다.

네이트판 10대 이야기에서는 외모가 청소년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중요한 수단으로 논의된다. 이 게시판을 통해 우리는 외모 이상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외모가 청소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할 수 있다. 이런 보다 포괄적인 논의는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네이트판 뷰티톡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지위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기준에 맞는 외모를 갖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이러한 노력이 자존감과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는 동시에, 그 외의 역학관계를 살펴보고자 우리는 네이트판 10대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2. 담화 원자 토픽 모델링 담화 벡터 추출

k	일관성 (Coherence)	토픽 다양성 (Diversity)	SSE	RMSE	R2
300	0.569	0.821	85955.47	0.135157	0.728
275	0.567	0.825	87572.31	0.136	0.723
250	0.575	0.849	89697.59	0.138	0.717
225	0.551	0.882	91697.28	0.14	0.71
200	0.5095	0.921	96975.07	0.144	0.694
150	0.509	0.938	103373.7	0.148	0.673
100	0.513	0.968	113207.8	0.155	0.642

DATM의 모델 평가 결과를 보면 k가 높을수록 토픽 다양성(Topic Diversity)이 낮아지지만 토픽 일관성

(Coherence)이 일정 수준 향상된다. 이는 토픽이 많아질수록 구분이 더 미묘해지기 때문이다. 또 k 가 높아지면 오차 측정값(SSE, RMSE)이 작아지고 임베딩 모델이 데이터셋의 분산(R^2)도 더 잘 설명한다. 하지만 일부 지표는 특정 시점 이후 약간만 개선되기 시작하고 몇 개는 크게 저하하는데(특히 토픽 다양성(Topic Diversity)과 일관성(Coherence)), 이는 모델이 과적합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러한 평가 지표들의 균형을 고려해 최종 k 값을 250으로 설정했다. 이는 네이트판 10대 이야기의 1,631,737개 문서에서 분석하고 고려해야 할 주제가 250개라는 의미이다.

STM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아름다움과 외모(얼굴과 신체), 자존감과 자기애, 개인화(성격 테스트와 퍼스널 컬러), 메이크업 제품 관련 단어와 표현을 포함한 토픽들을 찾으려 했다. 그 결과 우울증, 다이어트 및 섭식장애, 성형수술, 사진 편집, 그리고 대인관계 등을 다룬 11개 주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자존감 및 열등감이 다른 사회적 변수와 맺는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사회 계층, 교육, 사치, 사회적 이동성 관련 용어를 포함한 사회 계층화 주제를 추가했다. 이후 11개 주제 각각에 포함된 단어와 주제 간 연결성을 고려해 '외형 콤플렉스', '정신 건강, 자각', '자기 표현', '사회 위계', '뷰티 상품'이라는 5개 그룹으로 재구성했다.

A. 외형 콤플렉스

Topic_188 = ['지방_이식', '양악', '윤곽_수술', '안면_윤곽', '보톡스', '경락', '성형_시술', '수술_부작용', '사각_보톡스', '콧볼축소', '지방_흡입', '콤플렉스', '턱필러', '윤곽_주사', '부정교합', '콤플렉스', '콧대_코끝', '척추측만증', '치아_교정', '자존감_낮추', '매부리코', '시술', '외모_콤플렉스', '메부리', '광대_사각']

Topic_90 = ['폭식_키로', '주일_키로', '다이어트_식욕', '몸무게_유지', '몸무게_강박', '절식', '다여트', '운동_식단', '운동_병행', '요요', '다이어트_결심', '동안_키로', '몸무게_늘어나', '다이어트_정체기', '다이어트', '식이_장애', '폭식증', '다이어트_강박', '폭식', '씹빨', '바디_차이', '군것', '단식_단식', '식단_운동', '치팅']

Topic_13 = ['꼬막_쌍수', '트임_트임', '인라인_아웃', '라인_아웃', '쌍수_아웃', '완전_절개', '자연_쌍꺼풀', '트임_수술', '트임_쌍수', '쌍꺼풀_라인', '눈두덩', '망울', '눈앞_머리', '아웃_라인', '지방_제거', '쌍꺼풀_라인', '콧대_코끝', '몽고_주름', '쌍수_매몰', '세미_아웃', '쌍수_소세지', '트임', '트임_눈매', '쌍수_눈매', '메부리']

B. 정신 건강, 자각

Topic_112 = ['우울증_극복', '부정_감정', '행복_행복', '원동력', '행복', '좌우명', '궁극', '처절', '성취감', '자각']

목표_이루, '살아가', '행복_불행', '불행_행복', '헛되', '기적_기적', '영원', '모두', '흘러가_대로', '성취', '빛나', '되새기', '너와', '부질', '스스로', '극복_방법']

Topic_45 = ['열등감_찌들', '외모', '상향_평준', '비율_몸매', '자존감_채우', '내려치_당하', '열등감_심하', '외모_집착', '열등감', '자연미', '몸매_관리', '하타치', '자존감', '흔녀', '나노_단위', '편하', '패완열', '잘나', '평타_이상', '학벌', '매력_매력', '일반인_연예인', '자연_미인', '외모_정병', '비교']

Topic_197 = ['자신감_떨어지', '자존감_떨어지', '자신감', '평타_이상', '자존감_내려가', '평타', '마스크_마기', '대우_다르', '길캐_당하', '미팅_나가', '외모_자신감', '평범_자체', '자존감_하락', '눈웃음_예쁘', '하관_못생기', '이목구비_주차', '나름', '평타치', '평범', '모나', '길캐', '마해자', '외모_칭찬', '욕심나', '자존감_바닥']

C. 자기 표현

Topic_25 = ['말리_장미', '어울리_겨울', '힐끼', '어울리_퍼컬', '회끼', '어울리_여쿨', '베어그레이프', '진하_어울리', '연하_핑크', '핑크_어울리', '퍼컬_궁예', '여쿨뮤트', '새도우_어울리', '봄라', '갈색_어울리', '브라운_계열', '코랄', '피그_피그', '세도우', '어울리_흑발', '갈물', '여쿨_라이트', '회색_어울리', '가을뮤트', '릴바레']

Topic_35 = ['인프피_엔프피', '인프피_인프피', '엔프피_엔프피', '엔프', '인프피_잇프피', '엔프핀데', '외향_내향', '잇프', '성격', '엣프피', '인프', '성격_정반대', '인프핀데', '잇프핀데', '잇팁_잇팁', '엣프제', '엣팁', '동족_혐오', '속마음_애기', '하이텐션', '페르소나', '감정_공감', '엔프제', '인팁', '엔팁']

Topic_42 = ['포토시그니처', '셀카_셀카', '자동_보정', '실물_비슷하', '인스타그램', '포토이즘', '필터_보정', '포토_이즘', '셀카', '포토_그레이', '모노_맨션', '필름_카메라', '인화', '기본_카메라', '사진', '셀카_실물', '색감_보정', '기카', '셀카_후면', '일카', '필카', '보정_셀카', '셀카_보정', '셀카_거울', '뽀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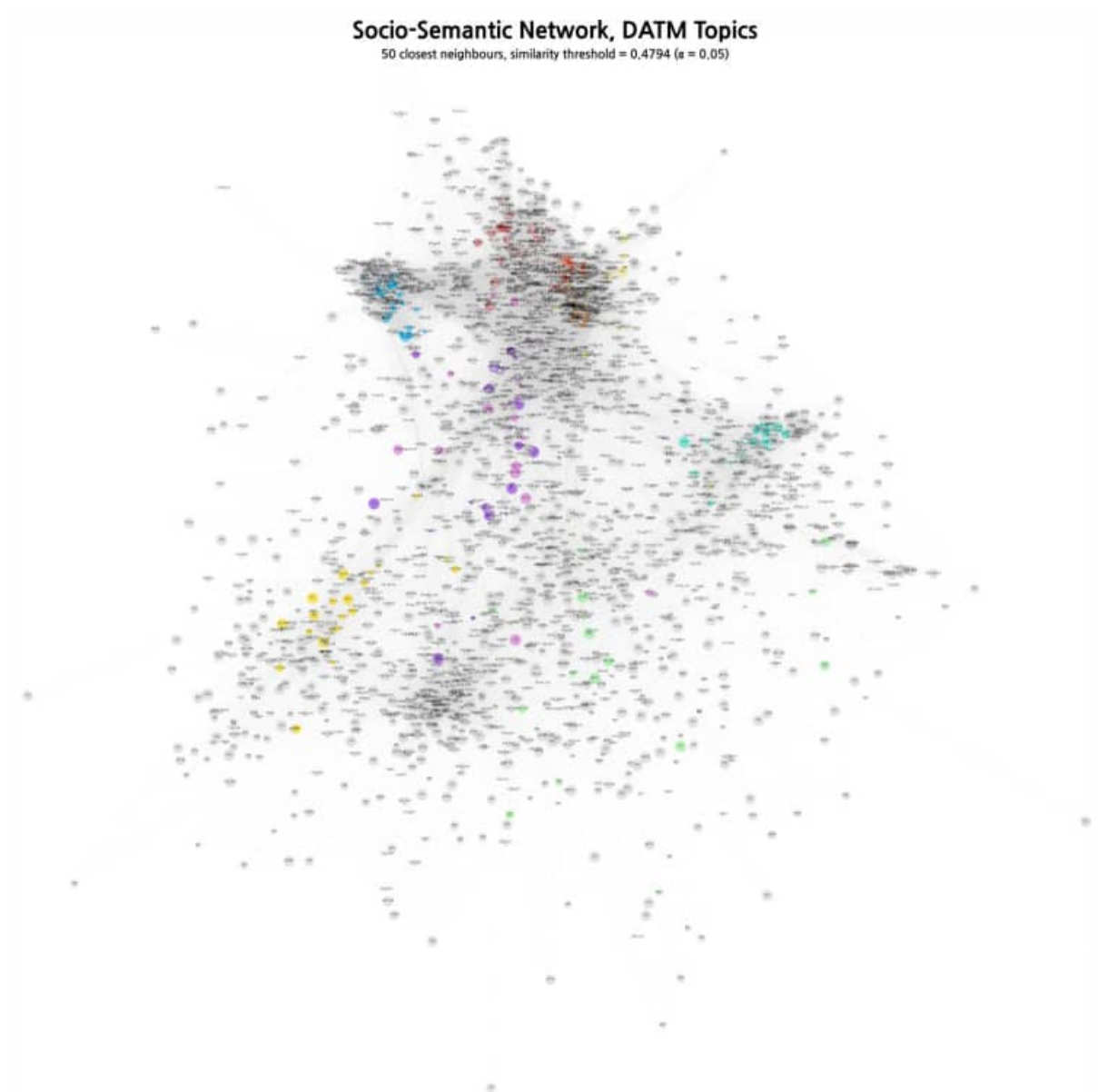
D. 사회 위계

Topic_243 = ['중산층', '금수저_금수저', '금수저', '부자', '부촌', '검커렁', '흙수저', '가난_가난', '부모_연봉', '집값_비싸', '자수성가', '집값_오르', '은수저', '잘살', '서울_집값', '매매', '중산', '줄부', '명품_명품', '가족_화목', '부자_동네', '가난', '찐따_인싸', '금수저_태어나', '인생_공평']

E. 뷰티 상품

Topic_245 = ['언더_속눈썹', '점막_채우', '언더_마스카라', '아이라인_어울리', '애교_그리', '트임_메이크업', '오버립', '애꿏', '코쉐딩', '애꿏살_그리', '뷰러_속눈썹', '화장_아이라인', '뷰러_마스카라', '속눈썹_뷰러', '애꿏살', '일자_눈썹', '아이라인_그리', '마스카라_뷰러', '아이라인', '새도우_바르', '눈썹', '눈썹_모양', '파우더_처리', '점막', '브로우']

3. 담화 원자 토픽 네트워크(Discourse Atom Topic Modeling Network of Topics)



네트워크는 25개 단어를 포함하는 11개 토픽으로 그려졌으며 275개의 겹치지 않는 노드가 생성되었다. 각 토픽에 대해서 95% 유의 수준(0.4794) 임계값으로 유사도가 높은 상위 50개 단어를 선정하여 2,389개 노드와 130,098개의 엣지를 도출했다. 275개의 토픽 토큰(topic token) 각각은 평균적으로 7.69개의 개별 토큰(individual token)을 네트워크에 기여했다. 평균 차수(average degree)는 108.91이다. 네트워크를 그리기 위해 우리는 2008년 Hagberg 등이 설명한 스프링 레이아웃 알고리즘(spring layout algorithm)이 포함된 NetworkX 패키지를 사용했다. 이 레이아웃은 Fruchterman-Reingold force-directed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노드는 서로 밀어내는 물체로 취급되고 엣지는 연결된 노드를 서로 잡아당기는 스프링처럼 작용하여 이러한 반대 힘이 시스템을 평형 상태로 이동시켜 가독성이 높고 직관적인 그래프를 만든다(Fruchterman & Reingold, 2019).

밝은 파랑(Topic 90), 빨강(Topic 188), 그리고 주황색(Topic 245)은 보라(Topic 45), 밝은 노랑(Topic 243), 네온 그린(Topic 112)보다 더 밀접하게 클러스터되어 있다. 이는 토픽 단어(topic word)마다 클러스터링 잠재력, 즉 각 토큰의 상위 n개 단어의 평균 코사인 유사도가 얼마나 높거나 낮은지, 토픽의 대표 토큰 간 유사도가 얼마나 높거나 낮은지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상위 단어의 코사인 유사도가 높은 토큰은 높은 클러스터링 가능성을 가진다. 단어가 매우 분산된 토픽은 높지 않은 측정값으로 연결되며 여러 다른 클러스터에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네트워크 중심은 Topic 45(보라색, 자존감과 외모)의 단어로 채워져 있다. 시각적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 중 하나는 바로 “외모”이다. 미용 제품(Topic 245, 붉은 주황색), 퍼스널 컬러(Topic 25, 밝은 주황색), 사진 편집(Topic 42, 카키색) 관련 주제는 거의 겹칠 정도로 밀접하게 클러스터되어 있다. 성형 수술(Topic 13, 연분홍색)과 일반적인 미용 고민/컴플렉스(Topic 188, 빨간색, 체중과 미적 개입) 관련 주제는 가까웠지만 의미적 공간에서 전환의 길목에 위치하며 신체 이미지와 다이어트, 폭식증, 거식증 같은 섭식 장애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다. 이 클러스터(Topic 90, 밝은 파란색)는 네트워크의 중앙(자존감과 외모 평가)과 왼쪽 하단(Topic 243, 밝은 노란색)의 사회적 계층화 논의와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외모와 외모지상주의에 관한 단어들 바로 왼쪽에는 체중과 다이어트와 관련된 단어가 있고 캐스팅과 모델과 연관된 단어들도 있다. 여기엔 “연예인_일반인” 같이 일반인이 아닌 유명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단어도 포함된다. 이들 단어는 사치품 소비를 나타내는 토큰을 통해 사회적 계급 주제와 연결된다. 이러한 역학 관

계에서 우리는 모델과 아이돌 데뷔를 통한 신분 상승 가능성과 외모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다. “외모지상주의” 토픽 또한 등장한다.

표준 및 평균과 관련된 의미도 흥미롭다. 외모 평가 및 비교의 맥락에서 “평균”, “평범” 그리고 “일반”과 같은 단어가 등장한다. 데이터셋에서 이러한 단어를 포함하는 원문을 확인한 결과 외모 평가를 요청하는 게시물에서 이러한 단어가 빈번히 등장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의 수준을 열린 질문 형식으로 묻는 대신 표준에 부합하는지 혹은 평균 이하인지(“평균_이하”) 구체적인 비교의 형태로 물었다. 이는 기준 프레임이나 참고점에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자기 평가가 완성된다는 고전적인 사회 비교 이론의 가정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름다움과 아름답다고 간주되는 것은 문화와 주관성에 따라 변하지만 기준은 항상 명확하다. 미의 기준에 부합하려는 동기는 다양하더라도 개인은 기준이 무엇인지 언제나 잘 이해하고 있다(Maan et al., 2018).

퍼스널 컬러(Topic 25, 연한 주황색)와 성격 테스트(Topic 35, 청록색) 주제는 성격에 관한 주제보다 아름다움에 관한 주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인지 특별히 더 가깝거나 겹치진 않았다. 사진 편집(Topic 42, 카키색) 주제는 퍼스널 컬러에 훨씬 더 근접하지만 두 개인화(personalization) 주제 사이에 시선(“시선”, “쳐다보” 등의 토큰을 포함)이라는 공통의 단어 주제를 강조하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연관성은 미디어가 내면화된 미의 기준에 미치는 영향의 부정적 요인 중 하나로 제시된 이미지 확산과 커뮤니케이션 보편화와 일치한다. 이는 이상화된 이미지의 규범적 효과를 강화한다(Song, 2023). 그러나 소셜 미디어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공유 이미지의 정치가 양방향으로 진행되어 우리는 무언가를 보는 동시에 그 무언가는 우리에게 다시 시선을 던진다(Lacan, 1998).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미디어화된 대중의 페르소나를 구성하려는 요구는 재현적 미디어를 제시적 미디어로 대체하고, 우리의 활동에 대한 타인의 시선을 정상화하는 문화 체제를 만들어냈다(Marshall, 2015).

네트워크에서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의미 집합은 정신 건강과 자존감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Topic 197(밝은 핑크, 자신감과 외모 평가), Topic 112(네온 그린, 우울증 극복과 행복 찾기), Topic 45(보라색, 낮은 자존감과 외모 관리)를 포함한다. Topic 197과 Topic 45는 자존감, 자신감과 외모의 연관성을 보여주며, Topic 112의 상위 단어는 행복과 우울감을 목표 달성 및 성취감과 연결한다. 세 주제 모두 군집화 경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Topic 112의 토큰은 교육, 공부, 능력에 관한 단어 군집(회색)에 훨씬 더 가깝고 Topic 197과 Topic 45는 미용 및 신체 관리 군집에 더 가깝다. Topic 112는 또한 감정과 정서에 관한 단어들의 클러스터링을 매개하며, 이는 MBTI 및 성격 특성 클러스터 토큰들과 연결된다. 자아와 관련된 감정의 이러한 다양한 장소 및 초점은 10대들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도와 자신에 대한 감정, 그리고 외모가 유일한 관련 측면이 아니더라도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더 넓은 맥락에서 연구를 파악하도록 도와준다.

4. 결과 정리

지금까지 STM과 DATM을 통해 미의식에 관한 토픽 모델링 결과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처음 세 종류의 데이터셋으로 시작하였다. 첫 번째는 10-30대가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뷰티와 관련된 인스티즈 게시판, 두 번째는 네이트판 10대 이야기, 네이트에서 자체적으로 10대 게시판 중 뷰티 관련 키워드를 통해 추출한 네이트판 뷰티톡 게시판이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3년 3개월 치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세 번째 데이터는 데이터셋 자체의 한계로 1년 치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인스티즈 게시판에서 STM 분석을 통해 9개 토픽을 도출했고 Intertopic Distance Map 분석 결과 (Topic 4) 다이어트, 피부, 화장에 관한 논의와 (Topic 8) 일상적인 미용 관리가 한 군집으로, (Topic 5) 연예인, 다이어트, 화장에 관한 토픽이 별개 군집으로, (Topic 7) 몸무게, 사이즈 등 다이어트와 (Topic 3) 메이크업, 퍼스널 컬러 등 맞춤형 뷰티가 하나의 군집을 이뤘다. 마지막으로 (Topic 1)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요소, (Topic 2) 학교와 취향, (Topic 6) 메이크업, (Topic 9) 여드름과 메이크업에 관한 주제가 군집으로 형성되었다.

네이트판 10대 이야기를 토픽모델링한 결과 (Topic 1) 자존감, 인터넷, 카메라, (Topic 2) 신체, 연애, (Topic 3) 평가, 요구, 열등감, (Topic 4) 분위기, 이미지, 코로나, 화장품, (Topic 5) 아이돌, 중학교, (Topic 6) 인스타, 유튜브, 연예인, 드라마, (Topic 7) 일상 이야기, 개인화, 화장품, (Topic 8) 고등학교, 꾸밈, (Topic 9) 피부에 관한 9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9개의 토픽은 10대들의 사회적 공간인 학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셀러브리티를 추구하는 미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이성에 대한 관심과 마른 몸매 등의 신체상이 연결되어 있었다. 자존감과 외모는 밀접한 관계를 보였고, 상호 평가를 주고 받으며 도달할 수 없는 미의 기준으로 열등감을 느끼는 모습이 포착됐다. 카메라를 통해 촬영하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거나 낮아

지는 것도 중요한 지점으로 나타났다.

더 협소한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네이트판 뷰티톡은 주로 외모와 미용에 한정된 논의를 다루고 있었다. 외모를 중심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미의식과 관련된 넓은 사회적 맥락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세 게시판을 대상으로 한 구조적 토픽 모델링 분석으로 1) 인스티즈 게시판 을 통해 전반적인 미의식을 파악하고, 2) 네이트판 10대 이야기 게시판을 통해 10대에게 나타나는 전반적 인 미의식을 파악하고, 3) 네이트판 뷰티톡을 통해 기존 외모, 뷰티 관련 논의에서 네이트판 10대 이야기가 포착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이 누락되어있음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청소년의 미의식을 다루는 가장 핵심적 인 데이터인 2) 네이트판 10대 이야기를 대상으로 담화 원자 토픽 모델링(DATM)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적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청소년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상호적으로 인정을 받는 과정에 외모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담화 원자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서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기준에 맞는 외모를 갖기 위해 수행하는 노력, 자존감과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그 외의 요소들이 주고받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가장 중심이 되는 토픽은 자존감과 외모평가였다. 미용 제품과 퍼스널 컬러, 사진 편집에 관련된 주 제는 서로 겹쳐져서 등장하는 밀접한 관계성을 보였다. 유명인과 사치품 소비에 관련된 단어들은 자존감과 외모평가와 사회적 계급 클러스터를 매개하는 관계를 보였다. 외모 평가와 비교의 맥락에서는 평균이라는 명확한 기준에 비교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단어들이 등장하였다.

STM 분석 결과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돌린 결과, 두 방법의 특성이 달라 결과가 조금씩 달랐지만 네이트판 10대 이야기에서 논의된 일부 의미와 토픽은 일관성이 있었다. 자존감과 외모의 연관성과 열등감과 외모 평가의 연관성 등이 그 예이다. 우리는 네이트판 10대 이야기 데이터에 대해 추가적으로 DATM 분석을 시행했다. 네이트판 10대 이야기에 대한 STM 결과는 학교 생활의 요소와 보다 직접 관련이 있었다면, DATM 결과와 코사인 유사도 네트워크는 교육이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 문제와 더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장원영, 카리나, 안유진, 뉴이스트, 차은우, 지민과 같은 특정 연예인 이름은 상대적 위치와 의미에 따라서 10대들의 관심 대상(가십 등) 또는 비교 대상(따라서 달성해야 할 목표) 모두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스티즈 뷰티 게시판에서 퍼스널 컬러와 관련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는 네이트판 10대 이야기에서 자기 표현 관련 주제를 탐색해보았다. 그 결과 규범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가꾸는 대신 스스로의 아름다움과 개성을 우선시하는 청소년들의 미의식 성향에 대한 유망한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회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존감이 변하는 메커니즘은 세 가지 정보 처리 과정, 즉 사회적 비교, 사회적 피드백 그리고 자기 반성을 포함하며, 이는 내부와 외부라는 두 가지 유형의 정보를 다룬다. 외부 정보는 다양한 출처에서 얻을 수 있으며 개인은 미디어, 조직, 지인/낯선 사람 같은 제 3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또래처럼 가까운 인물에게서 자신을 생각하는 기준에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외부 정보의 수용을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우리는 11가지 토픽을 분류한 다섯 가지 주제를 내적 자아(정신 건강, 수용, 자기애)와 외적 자아(신체 및 얼굴 감시와 향상)로 더 분류하였고, 사회적 지위와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외모를 꾸민다는 분석 내용을 통해 사회와 계급 투쟁이 이러한 행동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적 이동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한다고 파악했다.

역사를 보면 외모 평가는 현대에 국한된 현상이나 디지털 환경의 부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한국의 잡지나 포스터 등 대중 인쇄 매체에서도 외모는 대중 문화의 일부였다. 팸플릿과 잡지 등에서는 생김새를 논평하거나 좋은 외모의 기준을 가르치는 다양한 텍스트가 유통되었다(Kim, 2016, p. 143). 심지어 그 이전에도 일본 제국은 사진으로 식민지 조선인과 제국주의 일본인의 신체를 구분했으며, 조선인의 얼굴 표정을 인종적 열등감의 상징으로 분류했다(Kim, 2016, p. 140). 관상학은 동아시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발견되는 오래된 관습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사회적 권위를 상징한다(Pearl, 2010). 한국에서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인의 절반 정도가 얼굴 특징에서 사람의 성격이나 운세를 읽는 것을 다소 신빙성있는 점술의 한 형태로 여겼다. 심지어 성형수술 전 인상(人相)에 관한 상담을 통해 아름다우면서도 성공에 도움이 되는 얼굴을 추구하기도 했다(Holiday & Elfving-Hwang, 2012). 본 연구의 데이터에 포함된 자기 관리에 대한 다양한 생각은 성공의 조건과 외모, 즉 사회적 이동성과 외적 자아의 관계를 드러낸다. 네이트판 10대 이야기 전체 데이터셋 사전에서 “관리”라는 단어는 14번, bigrams에서는 13번 등장하는데 이 중 9개가 본 연구와 관련이 있다.

n-gram	frequency	n-gram	frequency
관리	6,488	멘탈_관리	156
자기_관리	797	몸매_관리	72
피부_관리	346	식단_관리	93
표정_관리	245	건강_관리	62
이미지_관리	176	컨디션_관리	45
		bigram total =	2,068

· **제외된 bigrams:** ‘관리_독서실’, ‘안전_관리’, ‘어장_관리’, ‘관리_사무소’

자기 관리에 대한 다양한 생각은 규범과 기준을 따르려는 욕구와 성공을 추구하기 위한 외모 개선이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회문화적, 역사적 증거는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 간 ‘순응’에 대한 인식 차이를 오랫동안 지적해왔다. 동아시아 국가에서 순응은 연결성과 조화로움 덕분에 바람직하게 여겨졌다(Kim & Markus, 199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동양인의 상호의존성 때문에 규범과 기준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외모 향상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Madan et al., 2018). 따라서 외모에 대한 집착은 집단 순응의 도구와 성공 추구라는 이중의 사회문화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력적인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미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불이익 및 차별은 개인이 미에 대해 순응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이는 순응과 성공 욕구를 경유해 외적 자아가 확대되는 경향을 암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을 단순히 사회적 압력의 수동적 수용자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이는 청소년들이 외부의 압력으로만 미의식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청소년들은 내부적 과정을 거쳐 미의식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 청소년들 사이에서 또래 집단의 압력과 외모 감시를 그들 스스로도 행하기 때문이며(Kenny et al., 2016). 2) 순응 추구는 자유와 주체성을 얻기 위한 협상 프레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Woo(2004)는 아름다운 여성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사회적 권력”을 획득하려는 욕망과 현대 한국 여성들의 외모 집착을 연결지었다(2004, p. 76). “결혼 성형”과 “취업 성형” 등 한국 남성들도 미의 기준에 심한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Holliday & Elfving-Hwang, 2012), 여전히 미용 시장은 대부분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끝없는 자기 개선에 대한 욕구는 성공을 약속하면서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불리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논의되었다. 개인이 성과에 집중하고 단점을 노력 부족으로 탓하게 만듦으로서 개인의 관심은 사회적 차원의 불평등에서 실패에 대한 개인의 책임으로 옮겨간다(Lawton, 2000). 이러한 자기 개선과 권력 관계에 대한 인식은 탈코르셋 운동 등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미적 순응을 통해 얻어지는 특권을 스스로 거부하게 만들었다. 외모지상주의와 매력 정치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한국 사회에서도 2018년 탈코르셋 운동 같은 이니셔티브는 사회적 기준에 억압받는 주체들에게 미 규칙을 준수하는 것보다 거부함으로써 얻는 편

리함과 이점이 훨씬 더 큰 이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많은 여성이 예뻐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했는지 반성한 후 탈코르셋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Park, 2020). 이는 규범의 내면화가 필수적이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규범적 미의식에 대한 성찰은 이처럼 비대한 외적 자아 유지를 위해 소진한 것을 자각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 또한 미디어가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도 미디어가 규범을 조장하고 신체와 얼굴에 대한 통제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많은 증거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대중매체의 이상화된 이미지와 비교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Lennon et al., 1999). 사람들은 외부적 압력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으며, 외부적 압력의 성격에 따라서 내면화하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전통적인 미디어보다 이상적인 이미지가 더 많은 소셜미디어를 볼 때 수용자의 자기 신체 이미지 왜곡 경향이 덜하다는 것이다(Saiphoo & Vahedi, 2019). Saiphoo & Vahedi의 연구는 외적 이상화된 이미지의 무분별한 추구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데이터셋 결과는 10대들이 아름다운 유명인 특히 아이돌을 외모와 라이프스타일의 이상향으로 보는 걸 넘어 추구해야 할 기준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10대들은 유명인들의 특권을 탐내고 연예계 소속사 입사, 아이돌 데뷔, 모델 캐스팅,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등 스스로 유명인이 되려는 상향 이동성을 찾아 적극적으로 그들의 자질을 모방하려 한다. 미용 기술의 접근 용이성은 시나리오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이에 더해 소셜 미디어의 엄청나게 빠른 환경 속에서 “자신을 죽도록 향상시키는”(Schwartz, 2018) 경향은 사회적으로 “평균” 또는 “보통”으로 합의된 것에 대한 기준을 점점 더 높이고 실제로 평균적이고 보통인 사람들에게도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문제의 핵심은 성공, 인정, 평화, 순응 또는 상향 이동성을 약속하는 신체적 아름다움이 경쟁과 우발적 결과가 증가하는 불확실한 사회경제 시나리오에서 안정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격 테스트와 퍼스널 컬러에 대한 결과를 온전히 “자기 표현”으로 해석해야 할지는 불분명하다. 자기 표현은 눈에 드러나게 관찰할 수 없는 성격, 선호도, 가치, 신념, 의견 또는 태도의 외부화를 포함하며(Morgan & Townsend, 2022), 표현 방식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신을 이상화된 버전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솔직한 모습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이상화된 자기 표현은 인간본성의 일부로 긍정적인 자아관을 키우고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만 심리적 비용 또한 수반한다. Bailey et

al.의 연구는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진정성있는 자기 표현은 이상화된 자기 표현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다(Bailey et al., 2020). 청소년들의 미의식에서 성격 테스트와 퍼스널 컬러가 어떤 종류의 자기 표현에 근접한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자기 표현에 대한 관심은 절대적인 외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색이 드러나는 최적의 아름다움을 찾는 바람직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MBTI와 퍼스널 컬러의 유행은 규범과 기준에 순응하는 개인화된 방식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청소년들의 자기 인식과 자기 수용성을 강화하며 내적 자아를 포용하는 자연스러운 관문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외부적 틀을 활용한 자기표현의 방식이 내부적으로 획일적인 미의식의 기준을 넘어 더욱 다양한 기준으로 미의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부록

토픽 모델링 대표 문서

Topic 1	난 솔직히 자존감 이렇게 생각함.. 애초에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다르잖아사람의 외모수준, 능력 다 떠나서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있게 여기는지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결정나는거라 볼그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본인 스스로를 '가치있는사람' 과 같이 본인을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끝.그래서 자존감은 나를 얼마나 믿느냐와 관련된거같아 내가 객관적으로 남들보다 잘난게 없더라도 자존감이 높다면 그만큼 열악한 환경속에도 '나'를 믿는거지그래서 자존감은 자기계발같은 노력도 필수이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을 가치있는사람이라고 믿을때까지 세뇌시켜야됨.. 노력을 아무리해도 자존감이 낮은 경우는 결국 그만큼 자신을 신뢰하지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강 세뇌시켜야됨가치있는사람이라고 생각하자에서 그치는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느낄때까지 끝없고 끊임없이 되새기는게 세뇌임..
Topic 2	너네 짹사랑 얘기 들려줄수 있어? 나는 1년 반 넘어가고 끝내고 싶어서 고백해서 차였는데 아직 맘정리 못하고 있어 내가 하는 짹사랑이 죄다 이래서 내가 이상해보여 그리고 짹사랑 성공하는 법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짹사랑썰 자체가 넘 궁금해 너네 짹사랑은 어땠어? 내 다이어트 식단 잘못된거야??? 핍프 아님 다 애매하고 다이어트 기준이 다르다보니까 원하는 답변을 못얻었어160에 50 상체는 말랐단 말 듣는데 하체 똥똥하다 하체비만이라는 소리 지겹도록 들어서 6.6일부터 다이어트 시작했고 정확히 50.5에서 지금 48.3이야식단은 일단 학교 급식 안먹고 밥도 안먹었어알바하다 어쩔 수 없이 사장님이 사주신 햄버거 딱 한번 먹음???...어때 먹었던 식단 봐주라??아침 - 모닝빵 두개점심 - 다이어트 셰이크 정량만큼 에너지바 하나저녁 - 곤약젤리 바나나아침 - 사과 하나점심 - 다이어트 셰이크 에너지바 곤약젤리 하나씩저녁 - 닭가슴살아침 - 바나나점심 - 셰이크 하나 에너지바 두개저녁 - 곤약젤리운동은 학생이라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하는편이야...이지은 다이어트 허벅지 돌려깎기 하고 이지은 종아리 알 풀어주기 두개 하면 30 분정도?다이어트 한 지 얼마 안됐긴한데 주변에서 다 그러면 나중에 요요 폭식증 오고 기초대사량 떨어져서 나중에 좀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로 바뀌고 눈바디로 달라지는 거 별로 없다해서... 44가 목표야내가 잘못하고 있는건가? 가족들이 회전초밥먹고 샤브샤브먹어도 꼭 참고 안먹었다말야?? 근데 그정도 아니고 일반식 먹으면서 살 뺄 수 있다고 하고 솔직히 하체만 빼고싶은거지 상체는 별로 뺄 생각 없거든...?? 다이어트 해 본 판너 조언 좀 제발 간절함
Topic 3	+추가)나 놀랍게도 이사람같은 눈화장 어울리는데 ㅅㅂㅋㅋㅋㅋ 진짜 개어이없음 강 아이라인 남들처럼 하는거 저도 안어울리고 저판 눈화장이 어울림 진짜 개갈아 저 아래 저런 윗같은 줄까지 그어야함 +추가) 애들아...댓글에 너무 부정적인 말들만 있길래 추가로 말하자면 나 생얼 못생기거나 미미한편 아니야 오히려 눈도 쌍꺼풀때문에 진하게 생겼다는말 많이 듣는데 내가 말하려던건 '화장을 했을때' 이상하게 남들처럼 하는 화장이 안어울리고 저런화장이 어울린다는 거였어 나도 왜 그런지는 1도 모르겠어 자기객관화 못해서 내가 어울린다고 착각하는거 절대 아니야 친구들도 전부 어울리면 어울린다 안어울리면 안어울린다고 솔직하게 말해주는애들이고.... 너무 안좋은말하진 말아주라...ㅏㅏ

Topic 4	난 솔직히 백신패스 려게 생각함 .. 솔직히 위드코로나 시작했으면 미접종자를 다 맞게 하는 것도 하나의 임무이긴 함 .. 이대로 가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고 전국민이 코로나 걸리게 생겼는데 진짜 그럼에도!!! 위드코로나를 이어가겠다는 거잖아 ㅋㅋㅋㅋ 이렇게 쪽 위드코로나 이어간다면 지금 확진자나 확진자들 병상 없어서 갈데 없는 거나 의료진들 갈려니가는 거 보면 지금 >이 상황 <에 어쩔 수는 없음 근데 정부는 처음부터 미접종자 다수가 백신 접종 맞게 할 정책을 확대시키고 위드코로나를 열던가 해야지 지들이 달랑 위드코로나 시작~ 이래 놓고 확진자 수 몇천명씩 나오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 꼴난 거고 ㅸㅸ..... 강 지들이 일 안 한 걸 미접종자 탓으로 돌리는 게 너무 화남 이딴식으로 위기 다 닦쳐서 갑자기 백신패스 ㅇㅈㄹ 하는 건 진짜 무책임 한 거 아니냐고 ... ㅈ됐다 싶으니까 미접종자 일상도 못 하게 만드는 거잖아 난백신패스 반대 할 거면 위드코로나도 같이 없애야 한다고 생각함 둘이 세트로 안 가면 강 파국될 것 같음 마스카라 잘 하는 사람 있냐? 아침에 마스카라하고 저녁쯤 되면 눈꼬리쪽이 팬더마냥 되는데속눈썹 뿌리부터 마스카라를 해서 그런걸까?속눈썹 뿌리에 마스카라 하면 잘 번져?
Topic 5	친구가 나한테 아이돌 얘기 너무 많이 함 내가 아이돌 원래 두루두루 좋아하긴 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얘기는 잘 안 한단 말이야 어차피 남들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들 관심 없을 거 아니까 그냥 애들끼리 좋아하는 아이돌 누구야? 라는 질문 나오면 나는 ~~~랑 ~~~ 그룹 좋아해 이렇게 대답하는 정도지그런데 전부터 친했던 친구가 아이돌 그룹 A를 좋아하게 됐는데 솔직히 나는 그 그룹을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이 친구가 나한테 자꾸 그룹 A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 좀 별로잖아 그래서 친구가 그룹 a 얘기하는 거 참다가 오늘 a얘기 좀 그만 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는데 친구가 너는 좋아하는 아이돌도 많으면서 왜 나는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내가 잘못된 거야? 그냥 참고 a 얘기를 들었어야 해? 나는 저 친구한테 내가 좋아하는 그룹들 얘기한 적 진짜 없거든 그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얘기 꺼내기 전에는 절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얘기한 적 없는데 ㅠ아 몰라 복잡하다혹시나 싶어 말하는데 본문 아이돌 중에 뷔트스ㄴㄷ 없어
Topic 6	이게 여자 기싸움이나? 기싸움은 아니고 맥이는거내가뽕샵 좀 한 사진 인스타에 올렸더니친구가 오 너 아닌 것 같아 이라고 댓글 쓰고다른 사진에는뽕샵 때문에 머리카락 아주 조금 빠뿔어졌는데뽕샵 티도 안나는 거였음 그 친구만 뽕샵한거 아는거그 사진에는 댓글로 저 머리 좀 빼 이라고뭐 사진 올리면 진짜 사진 ㅈㄴ 못 찍어 진짜 이렇게 댓글 쓰고이거 나 은근히 맥이는 것 같지 않아..?
Topic 7	근데 퍼스널컬러 그거 피부색이로만 보는 거 아니야? 나 ㅈㄴ 노랑고 까매서 갈원인줄 알았는데친구가 그거 피부색이랑 화장품으로 보는 거 아니라고강 이목구비 조화랑 뭐지 옷색인가 천쫘가리 색으로 보는거라는데 ㄹㅇ임??
Topic 8	장원영 프리지아 장원영이 따라하는거 확실하네;; 이 사진 대충 내리다가 프리지안줄 앓. 그리고 프리지아가 장원영 따라쟁이?메컵 영상에서 만난 일화 알려줬었는데그 영상 말고 프리지아 중국계정에서 또 다른 장원영메컵하는 영상 있거든? 거기서 프리지아가 말하길장원영이 자기보고 프링이다라고 먼저 해서 셀카 찍게 된거임.. 셀카 제안은 프리지아가 먼저 했다고 함. 앓튼 장원영 프리지아 구독자고 참고도 많이 하는듯.. 요즘 아이브 리얼리티에서 자기가 담당함?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솔직히 좀 윈스러웠음 겸손함이 더 크지 않나 장원영은?...프리지아 참고해서 말하는거 같았음

Topic 9	피부 좋아진 방법 1 자기한테 맞는 클렌징 원지 확실하게 알기(평생 오일만 쓰다 밀크로 바꾼 후 급 좋아짐 클렌징폼에서 젤로 바꿈) 2 여드름 짜기전,짠 후,화농성 여드름패치 구분하고 쓰기 (원래는 다이소 여드름패치 하나로 귀찮아서 통침) 3 여드름 연고 쓰기(화장품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 4 짜고 방치하지말고 무조건 노스카나겔(금방 짠 여드름에 노스카나겔 효과 개직빵임 오래된거는 효과 잘 모르겠음) 5 잠 일찍 자기(많이 자는것도 중요한데 일찍 자야함) 6 화장도구 자주 세척,바꿔주기(브러쉬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퍼프는 빨기 귀찮아서 걍 매번 새로 삼) 7 세수하고 얼굴 수건으로 물기 제거해주기(그냥 냅두는것보다 수건으로 톡톡 제거하고 수돗물 성분 날아가게 해야한다는 소리 주워들음) 8 각질 제거한다고 필링젤 사용 x(차라리 아하 바하 뭐시기 토너 쓰기) 9 걍 얼굴에 손 안대기내 클렌징+스킨케어루틴화장안한날=클렌징젤로 세수 > 수건 톡톡 > 토너 > 화농성 여드름에 니들패치 붙이기 > 짜기전 여드름에 짜기전패치 붙이기 > 짠 여드름에 짜고난후패치 붙이기 > 로션 > 여드름연고(아젤리아) > 노스카나겔화장한 날=클렌징 밀크로 1차세안 > 클렌징 젤로 2차 세안 > 그 뒤로 화장안한날이랑 동일
---------	--

참고문헌

- 김남이. (2019). 탈코르셋: 담론의 전쟁터인 여성의 몸. 여/성이론,(41), 138-150.
- 김수정, 차영화, & 최섯별. (2020). 불평등한 미래: 청소년의 '꿈', 지위표식이 되다. 한국사회학, 54(1), 101-138.
- 김애라. (2019). '탈코르셋', 겟레디워드미(#getreadywithme) : 디지털경제의 대중화된 페미니즘. 한국여성학, 35(3), 43-78, 10.30719/JKWS.2019.09.35.3.43
- 김연숙. (2017). 경쟁사회와 감정의 작동방식: 웹툰〈패션왕〉에 나타난 청소년 문화를 중심으로: 웹툰〈패션왕〉에 나타난 청소년 문화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78), 179-207.
- 김유나, 설경옥, & 박선영. (2017).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와 심리적 부적응 및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8(3), 237-268
- 민지현. (2008). 미디어 이용이 청소년의 외모지상주의와 신체변형욕구에 미치는 영향:-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과 1인 미디어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19), 45-78.
- 박재홍, 강수택. (2012). 한국의 세대 변화와 탈물질주의. 한국사회학, 46(4), 69-95.
- 박현아, 이나은. (2023). 탈코르셋을 그만둔 여성들: 동일시의 정치와 물화된 얼굴을 넘어서. 문화와 사회, 31(1), 89-148.
- 서경선, & 조고미. (2019). 청소년의 뷰티관련 유튜브 이용동기, 자아존중감, 또래관계와의 연관성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5(4), 271-282.
- 이기범. (2009). 한국의 교육문화와 아동·청소년의 행복. 한국청소년연구, 20(1), 365-392.
- 이병훈. (2017). 기회 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태도의 인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24(2), 157-179.
- 이상익, & 이숙정. (2019). 소셜미디어 이용이 청소년의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 외모 대화, 마른 몸매의 내면화, 외모 상향 비교, 신체 불만족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7(1), 57-84.
- 이아영. "청소년의 외모복플렉스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7. 서울

- 이우창. (2016). 헬조선 담론의 기원: 발전론적 서사와 역사의 주체 연구, 1987-2016: 발전론적 서사와 역사의 주체 연구, 1987-2016. 사회와 철학, (32), 107-158.
- 이희정. (2018). 청년층 계층인식 변화가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학, 52(3), 119-164.
- 전주혜, 신명환. (2019). 청소년 인기 웹툰에 나타나는 외모지상주의 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45(2), 93-130.
- 정인관, 최성수, 황선재, & 최율. (2020).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과 교육 불평등: 2000년대 이후 경험적 연구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경제와사회, 12-59.
- 최선헌. (2019). 2019년 한국: 모든 이가 셀러브리티를 꿈꾸는 사회. 지식의 지평, (27), 54-65.
- 최예령, 배은경. (2022). 탈코르셋 이후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드렉스토어 경험: 정치적 소비주의 실천을 통한 페미니스트 되기. 한국여성학, 38(4), 83-118, 10.30719/JKWS.2022.12.38.4.83
- 최진명, 응웬, & 티투. (2020). 소셜 네트워크 내 동성 친구와의 외모경쟁마음이 럭셔리 소비에 미치는 영향: 여성의 지위 소비 재고찰. 마케팅논집, 28(1), 61-86.
- 한준. (2016). 한국의 사회이동: 현황과 배경. 현상과인식, 40(4), 45-74
- Adamson, P. A., & Galli, S. K. D. (2009). Modern concepts of beauty. Plastic and Aesthetic Nursing, 29(1), 5-9.
- Bailey, E. R., Matz, S. C., Youyou, W., & Iyengar, S. S. (2020). Authentic self-expression on social media is associated with greater subjective well-being. Nature communications, 11(1), 1-9.
- Barker, E. T., & Bornstein, M. H. (2010). Global self-esteem,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reported dieting in early adolescenc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0(2), 205-224.
- Barker, E. T., & Bornstein, M. H. (2010). Global self-esteem,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reported dieting in early adolescenc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0(2), 205-224.
- Bishop, S. (2018). Anxiety, panic and self-optimization: Inequalities and the YouTube algorithm. Convergence, 24(1), 69-84.
- Blondel, V. D., Guillaume, J. L., Lambiotte, R., & Lefebvre, E. (2008). Fast unfolding of communities in large

networks. *Journal of statistical mechanics: theory and experiment*, 2008(10), P10008.

Bomhoff, E. J., & Gu, M. M. L. (2012). East Asia remains different: A comment on the index of “self-expression values,” by Inglehart and Welzel.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3(3), 373-383.

Burroughs, J. E., & Rindfleisch, A. (2002). Materialism and well-being: A conflicting values perspectiv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9(3), 348-370.

Campbell, J. D. (1986). Similarity and uniqueness: The effects of attribute type, relevanc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81-294.

Cavico, F. J., Muffler, S. C., & Mujtaba, B. G. (2012). Appearance discrimination, lookism and lookphobia in the workplace. *Journal of Applied Business Research (JABR)*, 28(5), 791-802.

Charoensukmongkol, P. (2018). The impact of social media on social comparison and envy in teenagers: The moderating role of the parent comparing children and in-group competition among friend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7(1), 69-79.

Choi, I., & Cha, O. (2019).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the false consensus effect. *Frontiers in psychology*, 10, 428636.

Driessens, O. (2013). The celebritization of society and culture: Understanding the structural dynamics of celebrity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16(6), 641-657.

Erikson, E. (1959). *Theory of identity development*. E. Erikson,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Fruchterman, T. M., & Reingold, E. M. (1991). Graph drawing by force-directed placement. *Software: Practice and experience*, 21(11), 1129-1164.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Garden City, NY: Doubleday.

Gooch, G. (2024). On Mitigating Celebritistic Culture in Western Ecclesial Contexts. *Ecclesiology*, 20(1), 17-35.

Hagberg, A., Swart, P., & S Chult, D. (2008). Exploring network structure, dynamics, and function using NetworkX (No. LA-UR-08-05495; LA-UR-08-5495). Los Alamos National Lab.(LANL), Los Alamos, NM

(United States).

Harriger, J. A., Thompson, J. K., & Tiggemann, M. (2023). TikTok, TikTok, the time is now: Future directions in social media and body image. *Body Image*, 44, 222-226.

Holland, G., & Tiggemann, M. (2016). A systematic review of the impact of the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on body image and disordered eating outcomes. *Body image*, 17, 100-110.

Hollenbaugh, E. E. (2021). Self-Presentation in social media: Review and research opportunities. *Review of Communication Research*, 9, 80-98. <https://doi.org/10.12840/ISSN.2255-4165.027>

Holliday, R., & Elfving-Hwang, J. (2012). Gender, globalization and aesthetic surgery in South Korea. *Body & Society*, 18(2), 58-81.

Inglehart R. (1997). How solid is mass support for democracy: And how can we measure it?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6(January), 51-57.

Jarvis, J. A., Corbett, A. W., Thorpe, J. D., & Dufur, M. J. (2020). Too much of a good thing: Social capital and academic stress in South Korea. *Social Sciences*, 9(11), 187.

Jiang, Y., Bong, M., & Kim, S. I. (2015). Conformity of Korean adolescents in their perceptions of social relationships and academic motivation.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41-54.

Kang, J. H. (2019). Paratextual framing, retranslation, and discourses of self-help: An analysis of Korean translations of Self-Help from 1918 to 2017. In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in Korean Contexts* (pp. 115-132). Routledge.

Kang, S., Chung, W., Mora, A. R., & Chung, Y. (2013). Facebook comparisons among adolescents: how do identification and contrast relate to wellbeing. *Asian 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5(2), 1-21.

Kasser, T., & Ryan, R. M. (1993). A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correlates of financial success as a central life aspi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2), 410.

Kenny, U., O'Malley-Keighran, M.-P., Molcho, M., & Kelly, C. (2017).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 Body Image: Friends or Foe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2(6), 768-799. <https://doi.org/10.1177/0898010117711111>

org/10.1177/0743558416665478

Kim, D. S., Baek, E., & Choo, H. J. (2017). The effect of self-presentation and self-expression attitude on selfie behavior in SNS.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9(6), 701-711.

Kim, G. (2016). Faces that change: Physiognomy, portraiture, and photography in colonial Korea. *The Affect of Difference: Representations of Race in East Asian Empire*, 133-158.

Kim, H., & Markus, H. R. (1999). Deviance or uniqueness, harmony or conformity? A cultur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4), 785.

Kim, S., & Lee, Y. (2018). Why do women want to be beautiful? A qualitative study proposing a new “human beauty values” concept. *PLoS One*, 13(8).

Kim, S. Y., Seo, Y. S., & Baek, K. Y. (2014). Face consciousness among South Korean women: a culture-specific extension of objectification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1(1), 24.

Kim A.E. (2005) ‘Nonofficial Religion in South Korea: Prevalence of Fortunetelling and Other Forms of Divination’,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46(3): 284-302.

Krause, H. V., Baum, K., Baumann, A., & Krasnova, H. (2021). Unifying the detrimental and beneficial effects of social network site use on self-esteem: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Media Psychology*, 24(1), 10-47.

Lacan, J. (1998).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Alan Sheridan (trans.), W. W. Norton & Co.

Lawton, A. (2000). The meritocracy myth and the illusion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Minn. L. Rev.*, 85, 587.

Lee, H., Son, I., Yoon, J., & Kim, S. S. (2017). Lookism hurts: appearance discrimination and self-rated health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for equity in health*, 16, 1-7.

LendingTree, 2023. Fueled by Social Media, Gen Zers and Millennials Admit to Overspending on Beauty Products.

Lennon, S. J., Lillethun, A., & Buckland, S. S. (1999). Attitudes toward social comparison as a function of self-esteem: Idealized appearance and body image.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7(4), 379-405.

- Madan, S., Basu, S., Ng, S., & Ching Lim, E. A. (2018). Impact of culture on the pursuit of beauty: Evidence from five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26(4), 54-68.
- Marshall, P. D. (2015). Monitoring persona: mediatized identity and the edited public self. *Frame: journal of literary studies*, 28(1), 115-133.
- Meier, E. P., & Gray, J. (2014). Facebook photo activity associated with body image disturbance in adolescent girl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7(4), 199-206.
- Morgan, C., & Townsend, C. (2022). Why the drive: The utilitarian and hedonic benefits of self-expression through consumption.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46, 101320.
- Nanda, M. C. (2020). Gen-Z shopping: Separating myth from reality. *Business of Fashion*.
- Ozimek, P., Lainas, S., Bierhoff, H. W., & Rohmann, E. (2023). How photo editing in social media shapes self-perceived attractiveness and self-esteem via self-objectification and physical appearance comparisons. *BMC psychology*, 11(1), 99.
- Park, H. (2020). Throwing off the corset: a contemporary history of the beauty resistance movement in South Korea. *Dignity: A Journal of Analysis of Exploitation and Violence*, 5(3), 1.
- Park, H. S. (2012). Culture, need for uniqueness, and the false consensus effect. *Journal of Social, Evolutionary, and Cultural Psychology*, 6(1), 82.
- Park, J. Y., & Chung, I. J. (2014). Adolescent suicide triggered by problems at school in Korea: Analyses focusing on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plan, and attempts as four dimensions of suicide. *Child indicators research*, 7, 75-88.
- Patrick, H., Neighbors, C., & Knee, C. R. (2004). Appearance-related social comparisons: The role of contingent self-esteem and self-perceptions of attractive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4), 501-514.
- Pearl, S. (2010). *About faces: Physiognomy in nineteenth-century Britain*. Harvard University Press.
- Pew Research Center, December 2023, "Teens, Social Media and Technology 2023"
- Saiphoo, A. N., & Vahedi, Z. (2019).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media use

and body image disturbanc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01, 259-275.

Schofield, Daisy. Oct. 16, 2023. Why the rise of 'natural beauty' is a scam. *Dazed*.

Schwartz, Alexandra. "Improving ourselves to death." *The New Yorker* 8 (2018). <https://www.newyorker.com/magazine/2018/01/15/improving-ourselves-to-death>

Sisti, A., Aryan, N., & Sadeghi, P. (2021). What is beauty?. *Aesthetic Plastic Surgery*, 45(5), 2163-2176.

Smith, A. (2014, February 3). What people like and dislike about Facebook. Retrieved from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4/02/03/what-people-like-dislike-about-facebook/>

Song, I. (2023). Does Instagram Have More Negative Impa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e Case of Korean College Students. *Asian Journal for Public Opinion Research*, 11(1), 4-30.

Srivastava, A., Mukherjee, S., & Jebarajakirthy, C. (2020). Aspirational consumption at the bottom of pyramid: A review of literature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10, 246-259.

Steinsbekk, S., Wichstrøm, L., Stenseng, F., Nesi, J., Hygen, B. W., & Skalická, V. (2021). The impact of social media use on appearance self-esteem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A 3-wave community stud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14.

Stolnitz, J. (1961). Beauty': Some Stages in the History of an Idea.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185-204.

Su, M. H., Suk, J., & Rojas, H. (2022). Social media expression, political extremity, and reduced network interaction: An imagined audience approach. *Social Media + Society*, 8(1), 20563051211069056.

Thoumrungroje A. (2018). A cross-national study of consumer spending behavior: The impact of social media intensity and materialism. *Journal of International Consumer Marketing*, 30(4), 276-286. <https://doi.org/10.1080/08961530.2018.1462130>

Tietje, L., & Cresap, S. (2005). Is lookism unjust?: The ethics of aesthetics and public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19(2), 31-50.

Weiss, G. (2017, May 24). The most desired career among young people is 'YouTuber' (study). *Tubefilter*.

Yun, Y. M., & Jung, S. H. (2018). Trajectories of appearance concerns of South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3(4), 245-254.

